

# 숲의 도시 나는 안산에 산다

안산시 시정소식지 제 449호

# 브라보안산 BRAVO ANSAN



## 02~07

### 시민이 먼저다

- 재밌는 아빠가 되고픈 박선제 씨
- 신길고 협동조합 민경남 이사장
- 청소년노동인권지킴이 안세준 · 조민선 · 이지민 학생
- 꿈을 꾸는 중학교 1학년 송은지 학생
- 여자 단거리 기록보유자 이영숙 감독
- 고려인들에게 후원하는 하용주 씨
- 아파트 공동체를 위한 김도연 입주자 대표회장
- 전기관리자로 인생 제2막을 연 윤현덕 어르신
- 지속가능한 예술, 김태현 민예총 안산지부장
- 환경동아리 '하하'에서 활동하는 신지연 강사
- 세계로 공유가치를 넓히는 강건현 대표
- 여성자치대학 25기 임수자 회장

## 08

### 안산시, 자연재해 안전하다

안산시 예방대책 추진과 예방시설 정비가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반면 재해위험 요인은 낮아졌다. 화재발생, 교통사고, 범죄발생도 줄었고 생활안전 분야 구급 발생 건수도 감소했다.

## 12.13

### 2017 안산 10대 뉴스

시민프로축구단 '안산그리너스FC' 출범  
'대한민국 환경대상' 2년 연속 대상 수상  
골목상권 활성화 최우수 기관 선정 등

## 15

### 우리는 자랑스러운 안산시 학생명예기자다!

청소년이 뽑은 중앙동 핫플-이예나 기자  
양지중 1학년반의 특별한 수업-박수현 기자  
페이스북 안산소식 '스쿨어택'-최혜원 기자



안산시와 SNS로 친구맺기

facebook.com/ansancity3 story.kakao.com/ch/ansancity blog.naver.com/cityansan instagram.com/ansancity

발행일 2017년 12월 20일 발행인 안산시장 제종길 발행처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안산시청 공보관

무료 정기구독 신청 Tel 031.481.2042 / Fax 031.481.3224 / E-mail bravo@iansan.net e - 브라보안산 www.bravoansan.net



# 시민이 먼저다

## <가족·공동체> 박선제 “아빠의 몸 자체가 놀이동산이 될 수 있다”/ 민경난 “학생들이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운영”



도시의 시대고, 시민의 시대다. 나아가 정부 차원에서 자치분권을 위한 개헌도 준비하고 있다. 많은 권한과 역할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양될 것이며, 국가보다 도시의 역할이 보다 실생활에 가깝게 중요해 질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시민의 역할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특히 안산시는 민선6기 출범 때부터 사람중심, 생명중심을 강조하고 있다. ‘숲의 도시’라는 비전을 선포하며 시민의 삶을 질적으로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생태환경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로 미래가치를 보전·확대하고 있다. 2017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브라보안산’ 12월호의 특집은 ‘시민이 먼저다’로 정했다. 그동안 주를 이루던 시정 소식을 줄이고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현재의 생활상들을 담고자 했다.



### “아이에게 재밌는 아빠가 되고 싶어요!” 단원어린이도서관 ‘세상 재밌는 아빠놀이동산’에 참가한 평범한 직장인 박선제 씨와 딸 박가영 양

왔다. 이날 아빠학교에 참여한 박선제(41세, 고잔동) 씨는 “평소 직장에 다녀서 피곤하다는 핑계로 아이와 잘 놀아주지 못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놀아줘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요즘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려고 노력하는 중인데, 어떻게 놀아주는 게 좋은지?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궁금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마침 도서관에서 이런 교육이 있다고 해서 신청하게 됐어요. 아이에게 재밌는 아빠가 되고 싶었거든요. 이번 교육을 통해 아빠의 몸 자체가 놀이동산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펠트병 하나, 맨몸으로도 아이가 참 재미있어 하더라고요.”라며 소감을 밝혔다.

현재 단원경찰서에서 근무하는 박선제 씨는 맞벌이 부부로 자녀는 여섯 살 된 딸 박가영 양 한 명뿐이며, 기회가 되면 둘째를 낳고 싶은 마음을 숨기지 않았다. “아이 키우는 게 힘이 들긴 하지만 아이가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공유할 수 있는 게 하나하나 늘어갈수록 말로 표현 할 수 없는

벽찬 감정과 보람을 느낍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차근차근 좋은 아빠를 배워가는 중입니다.”라며 “사실 둘째를 갖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고 했다. 이어 “여보! 일하면서 가족까지 챙기는 거 힘들지? 아이와 놀아주는 건 내가 책임질 테니까, 우리 웃으며 행복합시다! 그리고 늦기 전에 아이 하나 더 가집시다.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다.

이날 권오진 교장은 아이의 몸을 악기처럼 연주하며 노는 방법, 아빠 몸에 올라타 노는 방법,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펠트병으로 노는 방법들을 소개하며, 아빠라는 존재 자체가 아이에게 장난감이 될 수 있고 놀이동산이 될 수 있다는 새로운 시각에 대해 소개했다. 또한 놀이 시간이 끝난 후에는 아빠들의 개별적인 고민을 들어보며, 아빠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실천적인 조언을 나누기도 했다.

◇ 문의 : 단원어린이도서관(031-481-2680)  
김희경 명예기자\_kepa-korea@hanmail.net

한 해의 마무리로 분주한 연말. 안산의 아빠들이 바쁜 스케줄을 모두 제치고 단원어린이도서관에 모였다. ‘아빠학교’ 권오진 교장에게 ‘아이와 놀아주는 아빠의 놀이비법’을 전수받는 자리였다. 12월 9일 단원어린이도서관에서 진행된 ‘세상 재밌는 아빠놀이동산’은 ‘적어도 내 자식에게만은 정말 재밌는 아빠’가 되고픈 아빠들의 열기로 뜨거

### 신길고 ‘와글바글’ 학교협동조합에서 세상을 배우다 민경난 이사장

신길고등학교 학생들이 직접 운영에 참여하는 학교가게 ‘와글바글’이 눈길을 끌고 있다. 학교와 마을에서 협동의 가치와 사회적 경제를 직접 실현하고 있는 협동조합 ‘신길고 마을교육공동체 개방형 사회협동조합’의 민경난 이사장을 만났다.

#### Q. ‘와글바글’이 생기게 된 계기는?

기존 매점에서 불량식품을 팔다 계약 종료와 동시에 1년 동안 매점이 문을 열지 않았다. 매점이 없어 불편해하던 학생, 학부모, 교사 등 학교 구성원들은 모두가 원하는 학교가게를 열기 위해 학부모들이 먼저 협동조합을 공부했고, 학생들 대상으로 협동조합 관련 교육을 한 후 165명의 조합원을 모집, 2015년 9월 4일 창립총회를 거쳐 현재의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게 됐다.

#### Q. 학교협동조합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학생이사들이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협동조합이 운영되고 있다. 학생들이 많이 몰리는 점심시간에는 학생 조합원들이 2인 1조로 월 5시간씩 학교가게에서 판매를 담당

한다.

아이들은 시식회와 토론을 거쳐 학교 인근의 빵집들과 연계해 현미, 흑임자로 만든 건강빵, 우리밀로 만든 과자 등 유기농 제품으로 바뀌어갔다. 수익을 많이 남기기 위한 매점이 아니라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팔고, 수익금은 학생들의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등 교육공동체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동시에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 Q. 학교협동조합에서 학생들은 무엇을 배우고 느끼나?

이사회에서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경청하며, 그래도 결정이 나지 않을 때는 투표를 통해 해결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여러 사람과 함께 협동하는 법을 익히며 스스로 자신들의 성장과 변화를 발견한다. 뿐만 아니라 매점에서 물건을 사고팔고, 또래 친구들을 고객으로 맞으면서 자연스럽게 경제를 익히고 친구들이 원하는 물건을 매점에 입고시키는 등 학교협동조합을 통해 수요 조사, 시장의 원리를 배운다.

◇ 문의 : 신길고 와글바글(031-495-4988)  
신선영 명예기자\_woghkah@hanmail.net



<청소년> 인권지킴이 학생들이 “노동의 가치를 이해하다” / 송은지 “구글 입사라는 확실한 꿈을 위해 도전!”

### “청소년 노동인권 우리가 지켜요”

## 중앙역 광장에서 거리공연을 통해 노동인권을 강조하다 안산시 청소년노동인권지킴이 안세준 · 조민선 · 이지민 학생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지난 7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017 안산시 청소년노동인권지킴이(이하 청소년노동인권지킴이)'를 모집하고 노동인권 교육과 보호활동을 진행했다. 두 차례에 걸쳐 청소년들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에 대해 교육한 후 탐방과 노동관련 인물 면담 등을 진행했으며, 길거리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전개하기도 했다. 특히 '전태일다리'를 함께 걸으며 청년노동자 전태일의 삶과 꿈에 대해 함께 느껴보고, 정의당 대표인 이정미 국회의원을 만나 면담도 진행했다. 평소 아무 생각 없이 지나쳤던 중앙역 앞 광장에서 낯선 사람들을 앞두고 근로기준법 버스킹(busking, 거리공연)을 하고 홍보물을 나눠주기도 했다. 1기로서의 활동을 마무리한 청소년노동인권지킴이 활동보고회가 12월 2일(토) 와동 마을 숲작은도서관에서 열렸다. 지난 활동모습을 영상으로 돌아보며 보고회 진행도 청소년이 직접 맡았다. 이곳에서 만난 청소년들은 노동인권지킴이 활동을 통해 많은 것들이 달라졌다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안세준(상록고2) 학생은 “처음에 노동인권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는 생소하고 호기심도 생겼어요. 대학에 가고 공부하고 직장을 구하는 것들이 당연한 순서일거라고만 생각했지, 나도 노동자라는 개념은 전혀 없었죠. 안산시청소년노동인권지킴이 교육과 활동을 통해 앞으로의 삶과 진로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고3이 되면 더 이상 참여가 어려울 것 같다.”며 아쉬워했다.

조민선(흥진고1) 학생은 “제가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회사파업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그때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싫어 원망을 했어요. 지금은 노동자로서 아버지의 삶과 권리에 대해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만나 이야기를 듣다보니 열심히 공부해서 노동자의 권리가 지켜지는 사회가 되도록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에 대해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만나 이야기를 듣다보니 열심히 공부해서 노동자의 권리가 지켜지는 사회가 되도록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지민(초지고2) 학생은 “머리띠까지 두르고 사람들 앞에서 근로기준법 버스킹을 할 때는 쑥스러웠지만, 쳐다봐주는 사람들을 보며 점점 자신감도 불고 중요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박재철 센터장은 “청소년들은 일하면서 부당한 경우를 당해도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지속적인 청소년노동인권보호 활동이 필요하고 이런 청소년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청소년노동인권이 잘 지켜지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라고 했다.

◇ 문의 :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031-487-4870)  
송민아 명예기자\_junseo1000@hanmail.net



## “아이돌을 좋아하고 밴드 보컬과 댄스까지 즐기며 확고한 꿈을 지닌 나는 중학교 1학년” 대부중학교 송은지 학생

아이돌 중 누구를 좋아하냐고 물었더니 '민호'라는 이름이 가장 먼저 나온다. 민호가 어느 팀인지 몰라서 혹시 '방탄소년단'이냐고 물었더니 그 팀은 아니라며 방탄소년단도 좋아한다. 사춘기 소녀의 마음에 들 요량으로 관심 있을 만한 질문을 해보는데 잘 웃어주고 무척이나 쾌활하다.

### Q. 중학생으로 보낸 2017년은 어땠는지?

중학생이 된 학기 초에는 학교생활에 적응하느라 힘들었는데 선생님들도 잘해주시고 금방 적응했습니다. 2017년은 중학생으로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었는데 초등학교 때와는 달리 친구관계를 더 깊이 생각하게 됐고 서로 배려하는 교우관계를 지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 Q. 대부도나 대부중학교 자랑을 한다면?

초등학교 2학년 때 전학 와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처음에는 마트도 멀고

적응이 안 되었지만 지금은 공기도 좋고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도 덜 받는 거 같아요. 좋아요. 대부중학교는 물론 초등학교까지 모든 선생님들과 소통이 잘 돼서 좋아요. 학생 수가 많지 않은 대부도 학교의 장점인 거 같습니다. 시골에 있는 학교지만 체육관 시설도 좋고 운동장도 넓어서 좋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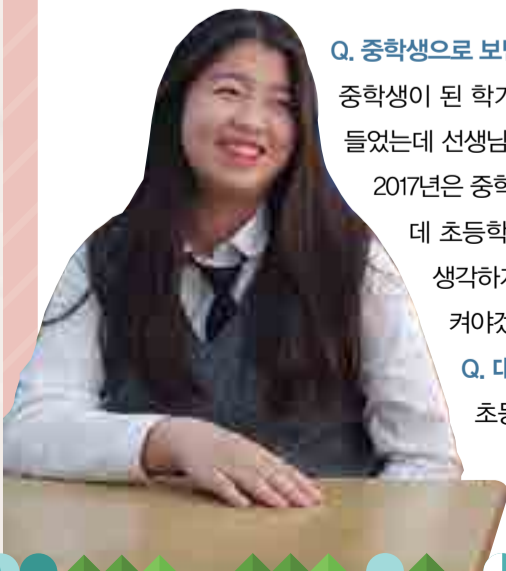
### Q. 자유학년제를 보낸 소감은?

중학교 1학년 자유학년제는 좋은 것 같습니다. 다양한 수업과 체험 활동을 통해 생각을 넓히고 진로를 정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밴드부 보컬과 댄스부 동아리 활동을 하며 취미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사회수업 시간의 토론, 국어수업 시간의 영화 영상 제작, 수학수업 시간의 보드게임 등 교과 시간에 이뤄진 자유수업도 무척 좋았습니다.

### Q. 겨울방학 때 하고 싶은 일은?

공부에 집중하려고요. '구글 회사 입사' 라는 꿈이 확실히 정해져 있으니 그 꿈을 향해 열심히 도전하고 싶어요. 공부 이외에 하고 싶은 일은 스키를 타는 것이예요. 하얀 설원을 신나게 달리며 스트레스를 풀고 싶네요.

◇ 문의 : 대부중학교(032-886-4272)  
이선희 명예기자\_jiamyou70@hanmail.net



시민이 먼저다

〈스포츠·봉사〉 이영숙 “우리 선수들, 몸 관리 잘하고, 아프지 말자”/ 하용주 “한 번 정도는 자녀와 함께 작은 봉사라도…”

“출발선에 섰을 때, 어떤 생각을 하나고요?  
 십여 초에서 갈리는 승부, 아무 생각이 안 들어야 합니다.”  
 여자 100미터 한국기록 보유자 이영숙 안산시청 육상감독



여자 단거리 100미터 한국기록을 10년 동안 자기기록으로 갱신한 이영숙 안산시청 육상감독은 여전히 여자 100미터 한국기록 보유자다. 이 감독은 “아무 생각 없이 출발선에

서야만 온전히 그 순간에 집중 할 수 있다”며 “자신을 괴롭히는 생각들이 넘칠 때, 달리다 보면 스트레스가 풀리고, 정신이 맑아지는데 이것이 바로 육상, 달리기의 매력”이라고 설명했다.

이영숙 감독은 초등학교 3학년에 처음 육상을 시작해 중학교 3학년 때 국가대표로 발탁됐다. 13년 동안의 국가대표 시절 중 82년, 86년, 90년 아시안게임에서 동메달을 획득했으며, 대학졸업 후 88년부터 98년까지 10년 동안 안산시청에서 선수로 뛰었다. 그 후 울산시청 코치, 이화여대 감독을 거쳐 2012년 다시 안산으로 돌아왔다. 이번에는 선수가 아닌 감독으로, 다시 안산을 위해 뛰고 있다.

“제가 안산시청에 있을 때 한국기록이 나왔습니다. 제가 감독하고 있는 안산시청 소속 선수가 제 기록을 깰려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수들에게 꾸준한 훈련과 좋은 몸 상태를 유지하라고 강조합니다. 출발선에서 바라본 100미터 트랙이 짧아 보일 때가 있고, 길어 보일 때가 있는데, 그 컨디션에 따라 십여 초의 승부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이영숙 감독은 현재 지도하고 있는 선수들에 대한 애정이 컸다. 특히, 좋은 훈련 여건을 마련해 준 안산시에 대해서도 감사하다는 인사를 잊지 않았다.

“육상에는 세부종목이 24개나 있습니다. 그만큼 준비할 것도 많고 지도할 것도 많죠. 우리 팀에는 멀리뛰기, 세단뛰기, 허들 등의 도약 코치와 100미터, 200미터, 400미터 등을 지도하는 단거리 코치가 있습니다. 남자 7명, 여자 5명 총 12명의 선수들이 다양한 종목에서 훈련받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주니어대회에서 우승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지원을 받고 있는 세단뛰기 성진석 선수, 2018년 아시안게임 창던지기 유망주인 김예람 선수 등이 우리팀의 자랑”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육상 종목의 훈련 여건을 고려해 지원해 주는 안산시에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선수들을 위한 더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수들, 몸 관리 잘하고, 아프지 좀 말자!”라고 당부했다.

도약을 지도하는 김태빈 코치와 단거리의 양충직 코치는 “올해는 부상이 많았는데 내년에는 부상 없이 경기에 잘 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자신감을 갖자!”라고 인사했고, 주장 장충명 씨는 “최선을 다할 테니 응원 부탁드립니다. 우리 팀원들, 2018년에도 파이팅하자!”라고 격려했다.

◇ 문의 : 안산시 체육진흥과(031-481-2109)  
 김희경 명예기자\_kepa-korea@hanmail.net

“아이들이 한국말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이 생겼으면...”  
 고려인 후원행사 ‘함께 시작’에서 봉사활동, 하용주 씨



고려인 강제이주 80주년을 맞는 올해, 고려인 특별법 개정과 고려인 아동청소년 장학 기금 마련을 위한 후원행사 ‘함께 시작’이 12월 9일(토) 고려인문화센터에서 진행됐다. 2017년 한 해에만 안산에 새롭게 동지를 만든 고려인이 3천명이 넘고, 지금은 1만5천여 고려인이 안산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올해 안산에서만 한 달에 약 300명씩 고려인이 증가한 것. 부모와 함께 고국을 찾아 입국한 고려인 아동청소년은 대부분 우리말과 글을 모른 채 들어오면서 한국생활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이번 행사는 고려인을 동포로 인정하는 내용의 고려인 특별법 개정 보고대회와 바자회, 공연 등으로 진행됐으며, 바자회 수익금은 고려인 아동청소년의 교육과 장학기금으로 쓰인다.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후원과 봉사활동에 참여한 하용주(59세, 영신신발백화점 운영) 씨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Q. 고려인 후원행사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있다.

고려인 관련 행사에는 두 번째 참여입니다. 같은 민족인 고려인이 동포로 인정받지 못해 생활이 열악한 모습을 보며 작은 도움이나마 주고자 참여했습니다. 고려인 청소년들이 한국말을 몰라 학교생활을 두려워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기금마련이 잘 이루어져 고려인 아이들이 한국말을 배울 수 있는 학교나 공간이 생겼으면 합니다.

Q. 후원한 물품은 무엇인지.

제가 초지동 시민시장에서 신발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가게에서 팔고 있는 물건으로 준비했습니다. 어느 집이나 필요한 욕실화를 50켤레 정도 후원했어요. 남에게 알려려고 한 일은 아닌데 쑥스럽네요. 물건을 내놓자마자 다 팔려서 도움이 된 것 같아 기분이



좋네요.

Q. 평소에도 이웃을 돕는 일에 관심이 높나.

봉사활동을 30년 넘게 하고 있어요. 안산시자율방범대도 하고, 새마을봉사도 하고 있지요. 가게를 운영하는 틈틈이 시간나면 봉사활동을 합니다. 연말이라고 술도 마시고 기분 내는 것도 좋지만, 한 번 정도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자녀와 함께 작은 봉사라도 하고 나면 훨씬 의미 있는 연말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Q. 마지막으로 바람이 있다면?

현행법상 고려인 4세의 경우 외국인으로 분류되어 만 19세가 되면 강제 출국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고려인특별법이 어서 빨리 개정되어 같은 동포인 고려인들을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 문의 : 고려인문화센터(031-493-7056)  
 송민아 명예기자\_junseo1000@hanmail.net



<마을·어르신> 김도연 “열악한 노동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윤현덕 “위축되지 말고 꾸준히 자기관리를 해야”

## “경비, 청소하시는 분들과 함께 살기 좋은 아파트 공동체 만들어가요” 김도연 중앙주공7단지 입주자대표회장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이하 비정규직센터)는 ‘안산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에 근거하여 안산시노동인권지킴이를 발족하고, 노동환경 실태조사와 노동인권보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로 3년차를 맞는 ‘안산시 취약계층 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사업보고 및 업무협약식’이 12월 14일(목) 오전 10시 안산시청 제1회의실에서 열렸다. 안산시노동인권지킴이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단시간 노동자가 많이 근무하고 있는 주요 프랜차이즈 업종 종사자 1,227명과 안산시 아파트에 근무하는 경비·청소 노동자 213명을 대상으로 노동조건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단시간노동자의 81.9%가 10~20대 청소년, 청년층이며 조사업체 10곳 중 7곳이 기초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비·청소 노동자의 평균나이는 69세로, 64세 고령층으로 60%이상이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고, 54% 이상 사업장에서 1년 미만 초단기 근로계약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비정규직센터는 이러한 취약계층노동자의 노동기본권보호를 위해 안산시, 고용노동부안산지청, 주요 프랜차이즈 업종 본사, 아파트관리 대표가 함께하는 ‘취약계층노동자 노동인권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추진해왔다. 협약에 참여한 김도연 중앙주공7단지 입주자대표회장을 만나 협약에 나서게 된 배경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 Q. 협약에 참여하게 된 배경은?

함께 살아가는 아파트 공동체를 만들어 가자는 취지에 입주민들도 대부분 공감은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은 있어요. 관리비인상과 연결되니까요. 우리 단지에서 일하고 있는 경비, 청소노동자들을 감축하지 않고 함께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비정규직센터에서 안산시노동인권지킴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해요.

### Q. 안산시노동인권지킴이 활동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안산시노동인권지킴이 사업이 꼭 필요한 활동이라고 생각해요. 주민들도 우리단지에서 일하는 경비, 청소노동자들의 휴게시간과 공간, 임금 등 근로기준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 우리들의 노력을 경비, 청소 분들도 알아주시는 것 같고, 살기 좋은 단지를 만들기 위해 서로 노력하게 되는 것 같아요.

### Q. 바람이 있다면?

청소하시는 분들의 쉼터가 지하에 있다 보니 매우 열악해요. 습하고 어둡고, 겨울인데 난방시설도 충분하지 않아요. 열악한 쉼터를 개선해드리고 싶는데 딱히 해결방법이 없네요. 쉼터개선사업에 대해 오늘 관계자분들이 모인 자리에서 입주민의 의견을 모아 대표로 전달했습니다. 열악한 쉼터가 꼭 개선되도록 지원이 된다면 좋겠어요.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프랜차이즈본사, 아파트입주자 대표와 관리사무소 등 관련단체 외에도 가맹점주들도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으며, 안산시와 비정규직센터는 여러 가지 의견을 모아 지역 내 취약계층노동자들의 노동인권보호 활동에 더욱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프랜차이즈 본사로는 (주)BGF리테일, (주)GS리테일, (주)코리아세븐, (주)롯데지알에스, 아파트는 고잔4차 푸르지오 등 13곳과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안산지부가 참여했다.

◇ 문의 :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031-487-4870)  
송민아 명예기자\_junseo1000@hanmail.net



## 아파트에서 전기 관리하는 윤현덕 어르신

### “세세하게 신경써주는 노인회 취업지원 센터에서 인간적인 정을 느끼고 있어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안산시 단원구지회 취업지원센터(이하 단원구지회)는 지역의 만 60세 이상 구직자들의 취업상담과 알선, 취업 연계를 통해 어르신들의 소득보장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2년 전 단원구지회를

통해 취업에 성공한 윤현덕(63세) 어르신을 만나 취업과정과 그 동안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 Q. 퇴근길이라 피곤하실 텐데, 표정이 무척 밝아 보이세요.

새롭게 옮긴 직장에서 오늘 첫 월급도 탔고, 덕분에 집사람과 같이 외식도 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 Q. 단원구지회를 통해 취업하셨는데, 과정도 들려주세요.

처음 단원구지회를 찾아갔을 때만 해도 운전관련 일을 하고 싶었는데, 나이가 있다 보니 쉽지 않았지요. 지금은 아파트 영선부(전기관리 등)에서 일하고 있어요. 단원구지회는 구직자들과의 상담을 통해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알선하는데, 제게도 큰 도움이 되었고 과정도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형식적인 상담일거라 생각했는데, 세세하게 신경써주는 것을 보며 인간적인 정을 느꼈다고 할까요? 취업지원센터장님의 동행면접도 많은 도움이 되

었습니다. 첫 소개로 식품회사에서 일하다가 지금은 아파트로 옮겨 감사한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 Q.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쉬는 날이면 사람들과 어울려 같이 운동하면서 보내요. 족구나 탁구를 즐겨하는데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건강관리도 되지요. 나이가 들었다고 자꾸 위축되지 말고 꾸준히 자기관리를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 Q.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요?

허락이 된다면 70대까지 일을 하고 싶어요. 여유롭지 않았지만 자식들도 잘 자라 출가했고, 어린 손녀딸에게 할아버지로서 과자라도 사 줄 수 있고, 더 나이 들면 집사람과 작은 텃밭이라도 일구며 살고 싶은 바람이지요. 나이 들면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지만, 꼭 돈을 위해서만 일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사람들과 사회 속에서 함께하는 공동체를 형성하며 살아가는 것도 큰 의미를 가져다주니까요.

한편, 단원구지회는 10월말 현재 취업희망자 536명이 접수, 상담결과 178명이 취업으로 연결됐다. 고령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있는 단원구지회는 경로당 급식도우미사업, 우리동네 실버순찰대 등 다양한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 문의 : (사)대한노인회 안산시 단원구지회 취업지원센터(031-403-8787)  
송민아 명예기자\_junseo1000@hanmail.net



시민이 먼저다

〈예술·환경〉 김태현 “문화를 공유하면 지역공동체가 단단해져”/ 신지연 “주민들의 꾸준한 관심이 하천을 살려요”

## “예술은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공공재, 지속가능한 예술 활동 펼칠 마당 많아져야” 김태현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 안산지부장

김태현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이하 민예총) 안산지부장은 아이디어가 많다. 세월호 참사 3주기 4월 연극제와, 선감학원 인권유린 희생자 위령제, 샘골마을 상록수문화제, 대부도 한여름 포도밭 착한 음악회 등을 모두 기획했다.

김태현 지부장은 한양대 광고홍보학과 95학번으로 대학 연극 동아리 활동 경험을 살려 2005년 극단 ‘걸판’을 세우고, 사람 사는 이야기들을 무대에 올려 왔다. 2013년도에는 서울예대 졸업생들로 극단을 구성, 서울 가지 말고 안산에 머물면서 안산의 동네풍경으로 연극을 만들자는 취지로 극단 이름을 ‘동네풍경’으로 지었다. 이듬해에는 안산문화재단과 청년예술인네트워크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청년큐브 예대캠프에 젊은이들이 모이는 것을 지켜보며, 젊은 예술인들이 머물면서 예술 하기 좋은 도시로 안산을 바꾸겠다는 목표로 경기도창조오디션에 응모, 안산시 문화예술과와 함께 ‘청년예술창작소 에이 빌리지(A-village)’라는 사업으로 40억을 지원받았다. 이에 대해 김 지부장은 “문화적으로 여가시간을 소비할 만한 공간이 안산에 마련된다는 점에서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남쪽 유휴지에 들어서는 에이 빌리지의 의미가 크다. 많은 사람이 찾는 문화적 명소로 만들어 또 하나의 청년예술인들의 메카가 되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지부장은 또한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예술인 기본소득제’를 기획했다. 이는 서울이나 성남의 청년수당처럼 일정금액을 예술인들에게 보장하는 것으로, 안산에서 보다 많은 예술인들이 지속가능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문화적 혜택을 시민이 향유하며 지역공동체는 더욱 단단해지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한다. 예를 들어 500명의 예술인들에게 기본 소득을 주고, 그 예술인들이 일 년에 두 차례씩만 재능기부를 해도 안산에는 일 년 내내 1000개의 예술 판이 벌어지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 제안이 현실이 될 경우 예술의 공공성은 확대되고, 안산의 예술인들은 일정 부분 경제적 안정을 기대할 수 있다. 예술인들은 자신이 하는 예술이 지역공동체에 보탬이 된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



◇ 문의 : 안산민예총(031-413-5230)  
백미란 명예기자\_whity0218@naver.com

## 하천의 매력에 푹 빠져있다 화정천 정화활동에도 힘쓴다 환경동아리 하하(河河)에서 활동하는 환경강사 신지연 씨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내내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하천의 매력에 푹 빠져 있는 환경동아리 ‘하하(河河)’. 하하는 안산환경재단의 도시숲만들기 교육과정에서 만들어진 마을동아리로 화정천에서 서식하는 수서생물 모니터링과 하천정화활동에 힘쓰고 있으며 아이들, 지역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생태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하천 관찰이 어려운 겨울에는 마을공동체 회복과 활성화를 위해 모인 ‘희망드림이’ 마을활동가와 함께 마을공원에서 숲 밭놀이 등 생태체험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낮선 사람들이 자주 화정천에 나타나자 지역 주민들도 부쩍 관심을 보이게 되었다”는 환경강사 신지연 씨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Q. 특별히 화정천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있나요?**

처음 동아리를 결성할 때 회원 중 몇 분이 선부동에 살고 있어서, 살고 있는 동네하천부터 관찰해보자는 생각으로 선택했어요. 익숙한 마을하천이라 더 애정을 갖게 된 것 같아요.

**Q. 화정천의 생태는 어떤가요?**

화정천을 모니터링하면서 회원들도 깜짝 놀랐어요. 2급수에 사는 피라미와 장구애비도 살고 있고 지난 5월 하천 모래 속에서는 재첩조개가 기어 다니는 것도 발견 했어요. 3급수에 사는 잉어와 붕어도 보이고 2급수에 사는 재첩이 많은 것을 보면 아마 수질상태는 2급수와 3급수 중간 정도로 예상합니다. 재첩이 발견되었을 때 회원들도 놀랐지만, 지역 주민들도 많이 놀라고 더 관심을 보이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Q. 에피소드도 많았을 것 같아요.**

재미있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한 일이 종종 생겨요. 화정초등학교 4~6학년 아이들과 생태수업을 진행하는데, 주민들이 오해를 하고는 민원을 넣었어요. 뜰채까지 들고 와서 아이들과 하천에서 조개를 캐기는 극성엄마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민원을 받고 출동한 관계자와 지역주민이 함께 한 자리에서 화정천 수서생물에 대한 수업이 진행된 거죠. 그런 일이 생기면 주민들은 오히려 더 화정천에 관심을 갖게 되요. 다음에 저희가 보이면 새로 발견한 생물은 없는지 등등 아는 체도 해주시고, 지속적으로 활동해 달라고 응원도 해주세요. 그럴 때 보람을 많이 느껴요.

**Q. 계획이나 바람이 있다면?**

지역 청소년과 함께 할 수 있는 하천모니터링 동아리를 만들려고 해요. 환경문제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의 진로에도 도움 되고, 무엇보다 어릴 때부터 환경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꾸준히 이어지니까요. 하하 활동을 하면서 생각했던 것보다 지역주민들도 마을의 하천에 많은 애정과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걸음표 표현할 기회가 없었을 뿐이죠. 회원끼리 회의도 하고 주민과 교육할 수 있는 거점공간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에요. 지역 주민들의 꾸준한 관심이 하천을 살리는 길이니깐요.

송민아 명예기자\_junseo1000@hanmail.net



<청년 · 여성> 강건현 “경쟁기업을 적이 아닌 협력자로 만들어야” / 임수자 “교육이나 모임은 서로의 공감대를 도와요”

시민이 먼저다



 굿붐스퀘어

## 도시에 봄을 일으키며 세계로 공유가치를 넓혀나가는 청년들 브랜드 매니지먼트 회사 굿붐스퀘어 강건현 대표

2015년 12월 청년큐브 한양캠프에 입주해 CSV(Creating Shared Value, 공유가치창출)를 기반으로 공유가치를 창출하는 브랜드 매니지먼트 회사 '굿붐스퀘어(Good Boom Square)'의 강건현 대표(39세)를 만났다.

### Q. 굿붐스퀘어는 어떤 회사인가?

굿붐스퀘어는 이 도시를 사랑하는 마음과 이를 위한 노력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돕고자 마련된 오픈광장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산에 살고 있는 어른으로서,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는 생각으로 시작했다. '내가 잘하는 일로 안산에 좋은 봄을 일으키자'는 모토로, 안산에 건강한 가치를 부여해 더 많은 사람들이 안산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기여로 표현할 수 있도록, 움직이고 있다.

### Q. 안산을 브랜딩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우울하고 위험한 도시라는 안산의 부정적 이미지가 세월호 이후에는 안쓰러운 도시가 되었다. 어두운 이미지를 벗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이승환의 '가족'을 커버스토리로 뮤직비디오를 제작했다. 우리가 겪은 아픔과 슬픔, 그걸 이겨내고자 한 시간과 노력들 모두 가족 안에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 뮤직비디오 '혼자라고 생각말기'에는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담았다. 2015년 11월, 서울광장에서 울려 퍼진 이 노래들은 SNS로도 퍼져나가며 안산이라는 범위를 넘어 모든 가족, 자신을 혼자라고 느끼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을 전달했다. 뮤직비디오에 참여한 가수 백다나 씨, 일러스트 박성경 작가의 안산9경, 안산의 골목과 길 등 도시 브랜딩은 아티스트 후원으로 이어진다.

### Q. 공유가치 창출과 지속가능한 기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안산과 굿붐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굿붐 내 모든 활동은 안산의 사회적 가치 창출과 경제적 이익을 함께 도모한다. 좋은 강의와 공연, 좋은 음식과 커피를 만드는 것으로도 기여가 가능하다. 과도한 할인경쟁 대신 각 가게마다 고유한 브랜드를 세워야 한다. 좋은 상품과 좋은 서비스, 정직한 납세,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공정한 임금 지급 등 굿붐숍 안에서 크로스 마케팅(경쟁기업을 적이 아닌 협력자로 만드는 상생의 마

케팅)을 통해 고객들은 풍성한 혜택을 얻고, 굿붐숍끼리의 통합 고객관리로 서로 상생하며,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지속가능한 기여가 가능하다.

### Q. 브랜딩 이외 어떤 사업으로 수익을 창출하는가?

소상공인들의 브랜드를 살려주는 프로젝트 '굿붐이벤트'는 단순 할인이나 뻔한 이벤트가 아니라, 그 가게만의 개성을 이벤트로 엮어서 홍보한다. '굿붐피플'은 가치관이나 철학이 분명하고, 안산을 위해 기여하고 싶은 사람들을 소개하는 코너며, '굿붐아카데미'는 좋은 강연 등 문화적 활기를 위한 프로젝트다. 공연 무대를 마련해주는 '굿붐스테이지', 착한 가게들과 가맹을 맺어 홍보하는 '굿붐숍'을 운영한다.



콘텐츠를 만드는 스타트업 팀이었던 굿붐은 안산지역부터 생산, 유통, 엔터테인먼트까지 다양한 기업과 함께 하고 있다. 2016년에는 중국에 진출했고, 올해는 브랜드 매니지먼트 회사로 성장하면서 지역상권 후원, 장학사업, 유기견 후원, 인디밴드 뮤직비디오 제작·홍보 등을 했으며 꿈그리샵 사업은 시리아 난민을 후원하기도 한다. '멋진 일'을 시작한 굿붐은 이제 안산을 넘어 세계로 공유가치를 넓혀나가며 더 큰 기여를 만들어가고 있다.

◇ 문의 : 굿붐스퀘어(www.goodboom.net)  
신선영 명예기자\_woghkah@hanmail.net

## “교육 받은 내용, 지역사회에 환원하겠다” 안산시 여성자치대학 25기 수료생 임수자 씨(동기 회장)

안산시는 여성들이 활발히 지방자치에 참여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이끌도록 여성자치대학을 개설해 운영 중이다.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주 1회 3시간 씩 13주 교육과정을 신안산대학교에 위탁하고, 문화예술·여성정책·법률·리더십 등 시대에 부응하는 교육으로 지도자로서의 소양과 자질을 쌓도록 돕고 있다. 여성자치대학은 2003년 5월 1기를 시작으로, 지난 12월 7일에는 25기 과정을 이수한 수료생 40명을 배출했다.

“좋은 강좌가 있는데 한 번 들어보라”는 직장 동료의 권유로 25기생이 된 임수자(52세, 사동)씨는 학교를 졸업한지 20여년 만에 다시 수강생이 되어 교문에 들어섰다. 첫 수업을 듣던 날은 “가슴이 설렜다”고 했다. ‘유머가 품격을 높인다’ ‘통쾌한 삶을 위한 웰빙건강관리’ ‘한국사에 족적을 남긴 여성 발자취’ ‘양성평등 구현을 위한 여성정책

과 사회 안전의 이해’ 등 매주 진행되는 훌륭한 강의는 물론, 비슷한 또래의 동기생들과 함께 한 것은 또 다른 즐거움이었다.

“한 분 한 분 개성 넘치는 동기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교육기간 내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1인 가구가 확대되고 있는 요즘, 이러한 교육이나 모임은 서로의 공감대 형성을 돕고 어려운 일을 함께 헤쳐 나가는 힘의 통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3개월 과정은 모두 끝났지만 동문 모임을 시작으로, 교육 받은 것을 지역사회에 환원할 겁니다.” 동기들이 뽑은 25기 회장인 임수자 씨는 수료식 이후 동문 모임을 결성해 지속적으로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 문의 : 안산시 여성가족과(031-481-2264)  
백미란 명예기자\_whity0218@naver.com





## 안산시, 자연재해 안전도 좋아졌다 예방대책 '우수' 예방시설 '양호', 재해위험 '양호'

### 화재·교통·범죄·생활안전 모두 감소

안산시 자연재해 안전도가 지난해에 비해 좋아진 것으로 발표됐다. 재해위험 요인은 낮아진 반면 예방대책 추진과 예방시설 정비는 높은 점수를 받았다.

행정안전부가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재해위험 요인, 예방대책 추진, 예방시설 정비 등 3개 분야에 대해 60개 지표를 진단한 결과, 지난해 9등급에서 5등급으로 4단계나 상승했다. 100점으로 환산했을 때 65.95점으로 경기도(63.62)나 전국(63.22) 평균에 비해 높았다. 예방대책 추진은 '우수'를 받았고 예방시설 정비와 재해위험 요인은 '양호'로 평가됐다. 특히 예방대책 추진은 재해 저감을 위한 행정적인 노력도를 진단하는 사항으로, 취약 지역의 안전점검 및 관리대책, 재난 예보·경보 체계 구축 운영, 하수도 준설 등을 평가한다. 안산시는 2015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 완료하여 하천재해, 내수재해 등 지구별 저감 대책을 추진 중이며 재난예방 CCTV 및 경보방송 등의 지속적인 추가 설치로 재난 예방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는 평가다.

안산시 안전사회지원과 관계자는 "우리는 여름철 집중호우 시 기존 주택 반지하 세대

의 일부 침수를 제외하면 자연재해는 미미한 상황"이라며 "예방대책과 예방시설 정비 등에 더욱 집중하는 적극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연재해 이외 다른 분야의 안전지수도 양호했다.

화재 발생은 지난해 482건에서 올해는 428건으로 54건(11.2%) 감소했다. 장소별 화재발생 현황을 보면 야외가 147건(34%)으로 가장 많았고 주거시설(68건), 차량(57건)이 뒤를 이었다. 화재요인별로는 부주의가 149건(35%)으로 가장 높았고 전기(97건), 기계(87건) 순이었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도 지난해 53명에서 올해는 36명으로 17명이 줄었다. 32.1%의 감소율이다. 연령별로는 중장년층 및 7세 이상 노인의 사망비율이 높았으며, 유형별로는 자동차 승차중과 보행자 사망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또한 운전자 법규위반별 교통사고에서는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가장 많았다. 특히, 14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에서 안산시는 단 한 명의 사망자만 발생, 경기도 31개 시·군 중 수원, 용인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 안산시, 2018년 예산안 편성

### "모든 성과 시민에게 돌리겠다"... 사람중심 사업 '최우선'

#### '4차 산업혁명 선도' 등 문재인 정부 국정에 적극 대응

안산시 2018년 예산이 일반회계 기준 1조 3,527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안산시 관계자는 "2018년에는 개발 등 양적 성장 위주에서 벗어나 내실 있는 질적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예산을 편성했다."며 "이웃과 따뜻한 공동체 의식을 느낄 수 있는 사업을 중심에 뒀다."고 밝혔다.

항목별로는 사회복지(5,213억) 예산을 시작으로 공공질서·안전(76억), 교육(403억), 문화·관광(607억), 환경보호(692억), 국토·지역개발(527억), 수송·교통(1,096억), 산업·중소기업(176억), 농림·해양수산(245억), 보건(290억)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2018년 예산안은 적극적인 주민 참여와 자주재정 확충을 통한 도시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 이를 위해 안산시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용하여 각계각층의 시민 목소리가 예산안에 반영되도록 노력했으며,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한 도시재생 기반구축에 37억 원을 편성했다.

무엇보다 안산을 4차 산업혁명의 선도 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예산편성이 눈에 띈다. 먼저, 문재인 정부 공약과 연계한 안산사이언스밸리(ASV)를 중심으로 한 첨단 산업벨트 구축사업이다. 이를 위해 스마트팩토리 제조 혁신 센터 광역거점화 사업 등에 70억 원을 마련했다. 또한 대한민국 제조업의 심장이라 불리는 안산스마트

허브 제조 혁신과 기반 시설 개선을 위해 121억 원을 투자한다.

문재인 정부 국정목표의 최대 화두인 일자리창출과 관련해 안산시도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특히 서민과 청년 중심의 일자리 3만개 창출을 목표로 93억 원의 예산을 들여 공공 일 자리를 마련하고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일자리정보지도 서비스,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등 구인·구직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는 원스톱(ONE-STOP) 시스템을 강화한다. 아울러 서민경제와 골목상권 활력을 위해 25억 원을 별도 편성하여 소상공인 육성 및 나들가게 육성을 지원한다. 대부도를 수도권 2,000만 인구가 찾는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한 '보물섬 프로젝트'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예산도 155억 원이 편성됐다. 특히, 24년 만에 다시 열리는

시화호 뱃길 조성사업을 위해 50억 원, 2019년 올해의 관광도시 조성 사업에 14억 원이 투자된다.

지속가능한 '숲의 도시' 조성 사업도 계속된다. 삼지공원 조성을 위해 9억 원, 가로 숲 및 생태도시 숲 조성을 위해 13억 원을 배정했으며, 이를 통해 1인당 생활권 도시 숲 15㎡ 달성에 박차를 가한다. 또한 공기가 청정한 안산 만들기 위한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및 경유차 저공해 사업 확대에 79억 원이 투입된다.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을 위한 안산플러스 에너지센터 건립 예산 40억 원도 포함됐다.





# 호수체육관 준공 & 안산스포츠클럽 출범 선진형 공공스포츠 운영... 배드민턴 · 농구 · 배구장 등 완비



안산시는 국비 9억 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13억7천만 원을 투입, 연면적 750㎡ 지상 2층 규모의 호수체육관 건립을 마치고, 지난 12월 11일 주민과 체육인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가졌다. 더불어 체육관을 운영하게 될 안산스포츠클럽 출범 식도 병행했다. 호수체육관 건립은 생활체육이 활발해지고, 주민들의 생활체육시설 건립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지난 2015년 10월 첫 건립 계획을 세워 2년의 공사 끝에 지난 10월 31

일 준공을 맞게 됐다.

배드민턴 · 농구 · 배구장 등 체육시설과 탈의실, 장애인 전용 화장실, 사무실,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갖췄다. 새롭게 출범한 안산스포츠클럽이 운영을 맡아 주민들의 생활체육을 통한 여가활동을 돕게 된다. 안산스포츠클럽은 선수 출신 전문 지도자들이 강사로 참여해 시민에게 다양한 체육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선진형 공공스포츠 클럽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저렴하게 수준 높은 스포츠 활동을 즐길 수 있다.

안산스포츠클럽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대한체육회가 주관한 '지역스포츠클럽 공모사업'에 안산시와 안산시체육회가 컨소시엄을 이뤄 참여해 선정됐으며, 국비 9억 원을 받아 사단법인으로 출범했다. 안산시 관계자는 "스포츠를 통한 건강한 시민, 행복한 안산"이란 슬로건으로 안산시가 체육도시로 나아가는 비전을 선포했다"며 "운동으로 활기찬 생활 이루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문의 : 안산시 체육진흥과(031-481-2107) 백미란 명예기자\_whity0218@naver.com

## 안산시, 청년큐브 초지캠프 '씨네랩 안산' 개소 19개 팀, 60여명 입주...4차 산업혁명 선도



안산시가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는 청년큐브 1곳을 추가로 조성했다. 지난 2015년 시작, 한양대캠프, 예대캠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복합 창업공간인 초지캠프(씨네랩 안산)는 기존 캠프들이 이미 포화된 상황에서, 창업자들이 요구하는 공간을 늘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2016년 말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부지를 물색했으며 공간설계와 시공, 내부 인테리어를 거쳐 오는 12월 28일 개소할 예정이다.

초지동 이마트 인근 신명트윈타워 A동 5층에 위치한 초지캠프는 전용면적 590평에 20여개의 창업실과 다목적실, 국제회의장, 전시관, 시제품 제작실, 회의실 등의 부대시설을 갖췄다. 초지캠프에는 19개 팀, 60여명이 입주할 예정으로 인공지능서비스, 공연예술, 빅데이터(Big data), 교육, 건강 등 참신하고 미래지향적인 분야의 아이템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입주팀들은 기본 1년 최대 3년 동안 청년큐브 공간에서 비즈니스 모델 업그레이드, 제품 정교화, 사업화, 기업가치 증대 등 중장기적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게 된다.

안산시와 경기테크노파크는 이와 같은 창업자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수요에 기반한 창업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안산시 지역 내 대학교 · 창업보육센터 등과도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경기테크노파크 관계자는 "국가의 미래는 청년에 달려있고, 청년은 꿈과 열정, 에너지를 가지고 미래로 질주한다.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사업 청년큐브는 이러한 청년들의 성장기반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기 위해 끊임없는 혁신과 성장의 길을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 문의 : 경기테크노파크(031-492-9948) 신선영 명예기자\_woghkah@hanmail.net

## 시화호에서 한강까지 자전거도로 잇는다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 광역자전거 관광길 개발 합의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과천시, 광명시, 군포시,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의왕시)는 12월 13일 군포시 중앙도서관에서 열린 제75차 정기회의에서 회원 도시 간에 '가칭'경기중부권 광역자전거 관광로드'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10월 13일 개최한 제74차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에서 안산시가 제안한 이번 안건은 두 차례의 실무협의를 거쳐 최종 노선계획안을 확정된 사항으로, 이번 회의에서 단절구간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반영하여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참석 단체장들은 지역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만큼 앞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나가기로 했으며, 특히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장인 양기대 광명시장은 7개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경기도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명으로 경기도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중부권 광역자전거 관광로드는 7개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관광자원과 자전거도로를 연계해 순환형 도로를 조성하고 한강변 자전거도로와 연계하는 자전거관광 네트워크 구축사업이다.

◇ 문의 : 안산시 미래전략관(031-481-2475)



# 안산시, 마이스 산업 비전 선포

## '2017 경기 마이스 데이 인 안산' 개최

MICE DAY IN ANSAN



**“생태·해양·스포츠 등 틈새시장 공략하겠다”**  
 경기도 마이스(MICE) 산업의 축제 '2017 경기 마이스 데이'가 12월 8일 안산 스퀘어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와 안산시 관계자 및 경기관광공사·한국마이스협회·마이스 얼라이언스(Alliance, 연합체)·서포터즈(Supporters)를 비롯해 태국·필리핀·말레이시아·중국 4개 국가에서 초청된 바이어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경기 마이스 데이'는 마이스 산업 육성과 이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2년 4월 첫 발을 내딛고 매년 경기도의 시·군을 돌며 열린다. 올해는 6회 째로 마이스 산업도시로 부상하고 있는 안산시가 행사를 유치, 국내·외 마이스 산업 관계자들에게 대부도 등 안산의 마이스 산업 관련 자원을 소개했으며, 앞으로의 발전 계획과 마이스 산업에 대한 안산시의 비전도 함께 선포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경기도의 마이스 담당자와 호텔·식당·여행사 등 마이스 얼라이언스와 한국 마이스 학회 및 협회 그리고 관련 단체들이 마이스 산업 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 위한 네트워크도 구축했다.

안산은 서울에서 50분, 인천항에서 30분, 인천국제공항에서 1시간 이내 거리에 위치한 물류와 교통의 요충지로, 서해안 제조업 벨트의 4차 산업혁명 선도 도시로 나아가고 있다. 또한 경기도에서 가장 넓은 해안과 바깥 바다를 갖고 있는 해양관광도시로, 안산의 대표 관광지 9곳 중 6곳이 대부도에 속해 있으며, 요트·승마·골프를 즐길 수 있는 휴양레저 인프라도 갖췄다.

안산시 관계자는 “마이스는 엄청난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이다. 안산시는 생태·해양·스포츠 등 중형 마이스 산업 분야에서 틈새시장을 힘차게 공략해 가겠다.”며 “더불어 경기도가 행복을 이끄는 마이스 산업의 선두주자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마이스(MICE)란 기업회의(Meeting), 비즈니스 관광(Incentive Tour), 국제회의(Convention), 전시회 또는 이벤트(Exhibition, Event)의 영문 첫 글자를 조합한 용어로, 회의, 전시회, 숙박, 관광, 쇼핑, 음식, 도시마케팅이 융·복합된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을 뜻한다.

◇ 문의 : 안산시 마이스산업과(031-481-3433)  
 백미란 명예기자\_why0218@naver.com

# 반월보건지소, 독거노인 겨울나기 지원

## 가정 방문... '따뜻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차갑게 부는 바람이 유독 서운한 계절. 반월보건지소의 '웜 앤 헬스(Warm & health)' 가정 방문 프로그램이 독거노인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우고 있다. 반월보건지소는 11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한파에 취약한 독거노인을 위한 집중건강관리 가정방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간호사 2인과 자원봉사자 2인으로 구성된 건강관리팀이 독거노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한파를 대비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위험 요인을 살피고, 건강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개인대응능력을 교육한다. 대상자는 반월동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다세대주택거주자, 고 연령의 독거노인이다.  
 건강관리팀은 독거노인의 가정을 방문해 집안청소 등 청결관리를 돕고, 단열 에어캡(일명 뽕뽕이)을 설치한다. 외

출이 어려운 노인을 위해 이·미용 서비스를 제공하며, 정서적 지지를 위해 말벗이 되기도 한다. 기초 건강을 체크하고 질환별 건강 상담을 진행하며, 질환별 건강관리수칙과 낙상예방을 위한 근력강화 운동을 교육한다. 기상특보 발효 시 한파대비 문자서비스도 제공한다.

반월보건소 담당자 전영진(지방간호서기) 씨와 손은숙(방문간호사) 씨는 “어르신들의 얼굴을 직접 뵈고 건강을 체크한 후 예방수칙까지 알려드리고 나서야 안심이 됩니다. 어르신들께서 '단열 에어캡을 붙이고 나서 집안이 너무 따뜻하다'고 감사 인사를 전해주시는 것 제 마음도 따뜻해집니다. 추운 날씨에 왕래가 어려운 겨울, 가정을 직접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통해 어르신들의 정서적 고립감이 완화되기를 기대합니다.”라고 했다.

간호사의 방문에 반가움을 밝힌 한 어르신은 “혼자 지내는 외로운 나에게 이렇게 큰 관심을 가져줘서 고맙다. 세상 혼자 인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알고 나를 찾아와 도와주시는지 정말 감사하다. 올 겨울은 다른 어떤 추운 겨울보다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뻐했다.

◇ 문의 : 반월보건지소(031-481-3768)  
 김희경 명예기자\_kepa-korea@hanmail.net



## “공감과 상생으로 미래교육과 소통하라”

### 4.16교육연구소, ‘하하하’ 인문학강좌 진행

**한완상 · 조희현 · 고은 · 황선미 · 함민복  
최고의 지성들 안산에서 강의**

한완상 전 교육부총리부터 조희현 서울시교육감, 고은 시인, 황선미 작가, 함민복 시인 등 당대 최고의 지성들이 펼치는 인문학 강좌가 장장 35주 동안 안산에서 펼쳐진다.

4.16교육연구소는 지난 11월 7일(화)부터 매주 화요일 저녁 6시 30분,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 국제문화대학 강당(520호)에서 ‘4.16교육 하하하 인문학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4.16교육연구소는 공정교육 민생실현, 현장중심 실천교육, 기본소득 경제교육, 민주시민교육, 사람중심 혁신교육 등 총 12대 중점 실천과제를 정하고 각 주제에 맞는 내용으로 강좌를 구성했다.

11~12월 ‘부끄러움을 아는 사회’, 1~2월 ‘삶의 최고 형태, 어리석음’, 3~4월 ‘절제와 겸손, 관계론의 확산’, 5~7월 ‘꽃으로 가득 찬 세계’로 진행되는 이번 강좌는 4.16교육연구소 외에도 경기국어교사모임,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 4.16 에듀티브(EDU-TV), 경기공정포럼이 함께 주최한다.

시작은 세월호 변호사로 불리는 박주민 국회의원이 문을 열었다. 12월 19일까지 총 7강이 진행됐으며, 7강은 정호승

시인이 맡았다.

이 강좌를 기획한 4.16교육연구소 김태철 소장은 “우리는 무려 35주 동안이나 지속되는 무모한 도전을 시작하려 한다. 이번 강좌들을 듣다보면 ‘공부는 망치로 한다’는 신영복 선생님의 말씀처럼, 실천하는 사람들의 인문학은 어떠해야 하는지 깨닫게 될 것”이라며 “하하하 인문학강좌에 많은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4.16교육연구소 구희현 이사장은 “근본적으로 질문은 타자(他者)에 대한 상상력이 깊어질 때 가능하다. 안타깝게도 우리 교육은 질문하지 않는다. 하하하 인문학강좌를 통해 질문하고 상상하며 그 중심에 사람을 두는 많은 이들과 교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사제동행 행사로 진행되는 이번 강좌는 1일 5천 원의 수강료가 있으나 학생은 무료다. 사전접수, 당일 현장접수 모두 가능하다. ‘가만있으라’는 교육을 바꾸는 ‘실천의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문의 : 4.16교육연구소(010-3039-1201)  
송민아 명예기자\_junseo1000@hanmail.net

## 4.16 교육 하하하 인문학강좌

### 공감과 상생으로 미래 교육과 소통하라!

일정	강사	강연제목	강사소속
11월 7일	역우현	4.16 사회연대세 바깥은 어떤 사회	4.16교육연구소 연구위원
11월 14일	한완상	세월호 초·중·고학령 문제	전 교육부총리, 경기교육연구원 이사
11월 21일	우정현	최대선생님의 에피소드	동국대학교
11월 28일	김민복	기본소득 시대를 읽다	한양대학교, 혁신교육연구소장
12월 5일	이태원	주거도시문제와 생활의 전환	전, 경기연구원/경기대학교
12월 12일	김종우	지평선 너머의 세계로 떠나는 여행	신원대학교
12월 19일	정호승	시인 정호승의 시	시인
12월 26일	이태원	내가 원하는 조국의 상생 정책은 무엇인가	전, 경기연구원/경기대학교

일정	강사	강연제목	강사소속
1월 2일	구희현	4.16교육연구소 365일 교육비전	4.16교육연구소 이사장
1월 9일	조희현	무엇이 행복한 학교인가	서울시교육감
1월 16일	나혜원	행복한 삶, 행복한 죽음	4.16교육연구소 연구위원
1월 23일	이수현	4.16 교육혁신의 선진사례와 성공	가톨릭대학교/가톨릭대학교
1월 30일	이영희	행복이란 무엇인가	고려대학교
2월 6일	우석훈	세월호 참사는 왜 일어났는가	한양대학교/한양대학교
2월 13일	고은	고은의 시	시인
2월 20일	이태원	공정교육을 위한 민생실현의 과제	경기연구원/경기연구원
2월 27일	이영희	시민적 사회를 위한 교육혁신	고려대학교
3월 6일	박재홍	혁신교육의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	고려대학교
3월 13일	김민복	행복의 길	한양대학교
3월 20일	황선미	남해의 바다	4.16교육연구소
3월 27일	고은	고은의 시	시인
4월 3일	역우현	4.16교육연구소 365일 교육비전	4.16교육연구소 이사장
4월 10일	조희현	무엇이 행복한 학교인가	서울시교육감
4월 17일	나혜원	행복한 삶, 행복한 죽음	4.16교육연구소 연구위원
4월 24일	이수현	4.16 교육혁신의 선진사례와 성공	가톨릭대학교/가톨릭대학교
4월 31일	이영희	행복이란 무엇인가	고려대학교
5월 8일	우석훈	세월호 참사는 왜 일어났는가	한양대학교/한양대학교
5월 15일	고은	고은의 시	시인
5월 22일	이태원	공정교육을 위한 민생실현의 과제	경기연구원/경기연구원
5월 29일	이영희	시민적 사회를 위한 교육혁신	고려대학교
6월 5일	박재홍	혁신교육의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	고려대학교
6월 12일	김민복	행복의 길	한양대학교
6월 19일	황선미	남해의 바다	4.16교육연구소
6월 26일	고은	고은의 시	시인
7월 3일	역우현	4.16교육연구소 365일 교육비전	4.16교육연구소 이사장
7월 10일	조희현	무엇이 행복한 학교인가	서울시교육감
7월 17일	나혜원	행복한 삶, 행복한 죽음	4.16교육연구소 연구위원
7월 24일	이수현	4.16 교육혁신의 선진사례와 성공	가톨릭대학교/가톨릭대학교
7월 31일	이영희	행복이란 무엇인가	고려대학교
8월 7일	우석훈	세월호 참사는 왜 일어났는가	한양대학교/한양대학교
8월 14일	고은	고은의 시	시인
8월 21일	이태원	공정교육을 위한 민생실현의 과제	경기연구원/경기연구원
8월 28일	이영희	시민적 사회를 위한 교육혁신	고려대학교
9월 4일	박재홍	혁신교육의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	고려대학교
9월 11일	김민복	행복의 길	한양대학교
9월 18일	황선미	남해의 바다	4.16교육연구소
9월 25일	고은	고은의 시	시인
10월 2일	역우현	4.16교육연구소 365일 교육비전	4.16교육연구소 이사장
10월 9일	조희현	무엇이 행복한 학교인가	서울시교육감
10월 16일	나혜원	행복한 삶, 행복한 죽음	4.16교육연구소 연구위원
10월 23일	이수현	4.16 교육혁신의 선진사례와 성공	가톨릭대학교/가톨릭대학교
10월 30일	이영희	행복이란 무엇인가	고려대학교
11월 6일	우석훈	세월호 참사는 왜 일어났는가	한양대학교/한양대학교
11월 13일	고은	고은의 시	시인
11월 20일	이태원	공정교육을 위한 민생실현의 과제	경기연구원/경기연구원
11월 27일	이영희	시민적 사회를 위한 교육혁신	고려대학교
12월 4일	박재홍	혁신교육의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	고려대학교
12월 11일	김민복	행복의 길	한양대학교
12월 18일	황선미	남해의 바다	4.16교육연구소
12월 25일	고은	고은의 시	시인

4.16 교육연구소  
4.16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010-3039-1201

- ▶ K. 4.16EDU, 4.16교육연구소, 경기국어교사모임, 4.16EDU-TV, 경기공정포럼, 한양대학교교육재단주최
- ▶ K. 4.16교육연구소 하하하인문학강좌, 경기공정포럼교육위원회, 한양대학교, 부희연구소, 권학연구소, 행정국어교사모임
- ▶ K. 한양대학교 (K.A. 교육부예상직위, 전사발령한) 하하하연구소, 김민복연구소, 010-418-0123

## “소중한 당신을 응원합니다”

### 안산시자살예방센터, 2017 사업보고회 열어

안산시 자살예방센터(센터장 김윤희)는 12월 15일 한 해 동안 수행한 사업보고회를 열고 생명 지킴이로서 안산시민의 손을 잡고 펼쳐온 다양한 활동들을 알렸다.

보고회는 안산시립합창단의 아름다운 합창으로 막이 올라 자살예방사업 유공자 표창과 성과 보고, ‘서로 돕는 우리 동네 자살예방공동체를 만들자’라는 생명수호봉사단의 우수 활동사례 발표로 이어졌다.

자살예방센터는 2013년 7월 설립 이후 5명의 직원이 안산의 구석구석을 다니며 센터 설립 이유를 알렸고, 지난 2년간은 9명의 직원이 안산을 1,2,3,4권역으로 나눠 삶을 포기하려는 고위험군 시민의 생명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했다.

센터는 자살시도자와 유가족 상담사업으로 1577-0199 자살위험상담전화 24시간운영, 응급실 내원 자살시도자 관리, 자살유가족 지원 프로그램 운영, 자살시도자 위기개입·정신과 치료비 지원 사업 등을 진행했다. 우울증 검사 등 자살 고위험군 조기발견과 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노인 우울증 상담사업과 치료비지원 사업을 펼쳤다. 또한 자살예방교육과 홍보사업으로 생명사랑 자원봉사단 운영, 생명사랑교육, 자살예방캠페인,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유관기관과 네트워크 구축 등을 했다.

김윤희 센터장은 “자살 없는 안전한 도시·살기 좋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 지역사회와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안산시민 모두의 자살 위기감



공유는 생명을 사랑하는 행복한 도시의 기적을 이룰 것”이라며 새해에도 안산시민의 생명지킴이로서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문의 : 안산시 자살예방센터(031-418-0123)  
백미란 명예기자\_whity0218@naver.com



2017

1 시민프로축구단 '안산그리너스FC' 출범

강하고 끈질기며 협동하는 캐릭터 '초록늑대'  
시민참여형 구단 운영... 평균관중 대폭 증가, 최다 관중 유치



축구 도시 안산에 시민프로축구단이 출범했다. 창단 준비만 3년이 걸렸다. 지난 2월, 역사적인 창단식이 안산예술의전당에서 개최됐다. 구단주인 안산시장과 정몽규 대

한축구협회 회장, 허정무 한국프로축구연맹 부총재 등 약 800여 명이 모였다. 구단 운영은 시민참여형이다. 팀 명칭이나 엠블럼, 유니폼 등도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모와 선호도 조사 등을 통해 결정했다. 8,405명의 관중이 들어 찬 개막전에는 그야말로 기적이 일어났다. 20년 역사를 자랑하는 대전시티즌을 상대로 창단 팀 안산이 2:1 승리를 거두는 기염을 토해냈다. 관중 동원 능력도 검증됐다. 지난 7월, 전년 대비 가장 높은 관중 성장세를 보인 구단에게 주는 '플러스 스타디움 상'을 수상했으며, 9월에는 대상기간 내 최다 관중을 기록한 구단에게 주는 '풀 스타디움 상'까지 연속 수상했다. '평균관중 대폭 증가'와 '최다 관중 유치'라는 두 가지 성과를 창단 첫 해 기록했다. 성적은 시즌 초 목표했던 9위를 지켰다. 개인순위에서 라울은 득점 2위(15개)와 장혁진은 도움 1위(13개)에 올랐다.

2 안산시 '대한민국 환경대상' 2년 연속 대상 수상

시민 1인당 도시숲 면적 9㎡ 달성... 서울의 두 배 규모



안산시가 환경부 등 8개 정부 부처가 후원하는 '2017 대한민국 환경대상'에서 '도시 숲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는 지난해 대상 수상에 이은 2년 연속 수상으로 안산시가 숲과 생태가 살아 숨 쉬는 친환경 생태도시로 자리매김 되어 간다는

큰 의미가 있다.

이번에 대상을 수상한 안산시는 '2030 숲의 도시 안산'이라는 비전을 선포, 시민들의 심리적 안정과 육체적 치유를 목표로했으며, 이를 위해 안산 입구부터 숲을 만들고 도심 자투리땅에도 야생화나 나무들을 심는 등 다각적인 노력들을 전개했다.

3 안산시, 골목상권 활성화 최우수 기관 선정

10만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공실률 줄고 경쟁력 높였다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안산시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들이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심 상권의 상가 공실률은 줄어든 반면, 매출 신장력 등 경쟁력은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올해 공실률은

8.86%로 지난해 10.81%에 비해 약 1.95%p 감소했다. 3년 전 안산시 중심 상권 내 점포 총 2만3천573개 중 2천550개가 공실(10.82%)이었으나, 올해는 점포수가 2만3천836개로 263개 늘어난 반면 비어 있는 점포는 2,111개로 439개가 줄었다. 나들가게 점포의 신장률도 눈에 띈다. 지난해에 비해 점포수는 106개에서 120개로 14개가 늘었으며, 월 매출액은 28억여 원에서 32억여 원으로 전년 대비 13.9%의 신장률을 기록했다.

4 아시아 최초 '생태관광 국제회의' 개최

세계적 학자들의 지식 공유... "생태관광이 지역경제 살린다"



'2017 생태관광 국제회의 & 박람회'가 아시아 도시 중 최초로 안산에서 열렸다. 9월 12일부터 15일까지 나흘 동안 진행됐다. 전세계 40개국 120여 명의 등록자를 포함해 약 1000명이 컨퍼런스에

참가했고, 국내 20개 지방자치단체가 부스를 마련했으며, 만 명 이상의 누적 방문객이 박람회장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행사는 세계적인 해양생태 관광도시를 꿈꾸는 안산시가 전략적으로 유치한 것으로, 세계적인 생태학자들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생태관광이 안산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한 시간이었다는 평가다.

5 안산시, 제6회 경기도 청렴대상 '우수상' 수상

지난해에 이은 2년 연속 '쾌거'... 청렴도시로 자리매김



안산시가 '제6회 경기도 청렴대상'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면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상을 받아 명실상부한 청렴도시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평가는 기업애로 해결, 부패예방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자율시책 성과 및 노력, 부패방지를 위한 교육 등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했다.

안산시는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부서별·개인별 청렴 시책운영을 통한 마일리지제도 등 자율 청렴시책 운영, 인허가 분야 부정부당사례를 쉽게 제보 할 수 있도록 한 청렴 취약분야 스마트 피드백 모니터링 등 내·외부 부패방지를 위해 분야별 시책을 충실히 운영한 점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 안산 10대 뉴스

## 6

### 대부도 도시가스 공급사업 기공식 개최



**연료비로 어려움 겪던 숙원해결... 경영 및 주거환경 '개선'**  
 안산시는 11월 1일 대부도 방아머리공원 주차장 일원에서 대부도 경제·관광·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대부도 도시가스 공급사업' 기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공식은 지역상인 및 주민 등 약 500여명이 참여해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높은 관심과 열의를 나타냈으며, 영화배우 김형일 씨를 대부도 에너지 홍보대사로 위촉해 축하의 열기를 더했다. 대부도 도시가스 공급 사업은 이번 기공식을 시작으로 올해 방아머리부터 북동삼거리

리 ~ 구봉도까지 설치하고, 2018년에는 북동삼거리부터 대동초등학교, 영전마을 일구 등 대부도 주요거점에 대한 설치를 마무리, 내년 하반기부터는 대부도 지역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실내등유 등 기존 연료 대비 약 40%의 절감효과가 기대돼, 그동안 높은 연료비로 어려움을 겪던 숙박업과 요식업 등의 경영환경 개선과 주민들의 높은 난방비 절감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 7

### 안산시, 주민자치 모범마을 '우뚝'

#### 전국박람회, 일동 '대상' 사이동·고잔동 '장려상' 수상



안산시가 지난 10월 26일부터 4일 동안 전남 여수 세계박람회장에서 개최된 제16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 참가해 대상을 수상했다. 공모는 주민자치분야 등 총 4개 분야에 전국 383개 읍·면·동이 신청했으며, 1차 서류심사와 2차 인터뷰 심사를 통해 최종 64개 마을

을 선정했다. 안산시는 일동과 사이동이 주민자치 분야, 고잔동이 지역활성화 분야에 뽑히는 성과를 얻었다. 한 지방정부에서 3개 마을이 동시 선정된 것은 매우 뛰어난 성과다.

## 8

### 문재인 대통령, 안산시 관련 공약 2개 발표

#### "세월호 아픔 치유" "4차 산업혁명 선도 도시로 육성"



문재인 대통령이 안산과 관련한 공약 2개를 발표했다. 첫째는, 세월호의 아픔을 치유한다. 이를 위해 (가칭)안산국립트라우마센터를 설립·운영한다. 이 센터는 우리나라의 체계적인 심리지원뿐만

아니라 재난심리를 지원하는 컨트롤 타워의 역할도 하게 될 전망이다. 또한 공동체 복합시설도 설립·운영한다.

둘째는, 안산을 4차 산업혁명의 스마트 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안산스마트허브 재생혁신 사업을 적극 지원해 첨단산업단지로 탈바꿈 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안산사이언스밸리'를 중심으로 한 4차 산업혁명 선도 도시로 육성한다.

## 9

### 안산시, 시민의 뜻에 따라 동 명칭 변경

#### 원곡본동 ⇨ 원곡동과 신길동, 원곡1동과 원곡2동 ⇨ 백운동



안산시가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따라 7월 1일부터 25개 동 중 8개 동의 명칭을 변경했다. 사1동, 사2동, 사3동, 고잔1동, 고잔2동이 각각 사동, 사이동, 해양동, 고잔동, 중앙동으로 바뀐다. 또한 원곡본동은 원곡동과 신길동 2개동으로 나뉘고, 원곡1동과 원곡2동을 하나로 통합해 백운동으로 바꾼다.

이번 동 명칭 변경과 관할구역 조정은 지역정서를 반영한 개성 있는 동 명칭 사용과 인구·면적 등 동 규모의 많은 편차에 따른 행정서비스 차별을 시정하고 택지개발, 재건축·재개발 예정지역의 선제적 관할 구역을 조정하기 위해 진행됐다.

## 10

### 안산시, 혁신교육지구 시즌2 선정

#### 함께 만드는 지역 특색 교육도시 모델 구축



안산시가 경기도교육청에서 진행하는 혁신교육지구 시즌2 도시로 선정됐다. 지역사회 특성화로는 '안산품은 학교'가, 지역교육공동체 네트워크로는 지역교육 공동체 포럼 개최 및 아카데미 운영, 에코(Eco)-

문화예술 행복학교 등이 포함됐다. 지속가능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는 안산형 다문화 어울림학교, 자율동아리 운영 지원, 학습코칭 두루지원, 혁신교육지구 학습공동체 운영이 뽑혔으며, 안산시 혁신교육협력센터 운영, 내고장 안산마을 탐방 지원사업, 품의학교 지원, 청소년 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잡아드림 진로축제 등도 포함됐다.

## 안산중앙도서관

# 자기주도 학습전략 강연... 혼돈의 입시에서 길을 찾다



12월 8일, 자기주도 학습 전문가 이병훈 교육연구소 소장이 중앙도서관을 찾았다. '1% 공부 비밀', '트렌드 에듀 2016' 등을 집필하고 티비엔(MN) '진짜공부비법' 등에 출연해 입시 전문가로 알려진 이 소장은 '혼돈의 입시에서 길을 찾다'라는 주제로 변화하는 입시정책에 맞는 과목별 자기주도 학습전략에 대해 강연했다.

이 소장은 "중학교 자유학기제, 고교 문·이과 통합, 수능 영어 절대평가 등 변화하는 교육정책에 따라 정량과 결과 중심의 평가에서 정성과 과정 중심의 평가로 바뀌고 있는 입

시 패러다임의 변화를 인지하고 개인별 학습전략을 잘 짜야한다"며 강의를 시작했다. 이 소장은 특히 현재 대학입시는 수시 비중이 높아지면서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전형 등 내신 성적이 중요해졌으며, 인성적 자질, 학업역량, 창의적 역량으로 기재되는 학생생활기록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외고·국제고·자사고 폐지, 고교 내신 절대평가와 고교학점제, 수능절대평가 및 자격고사화 등 교육정책의 변화에 따른 장단점을 설명한 뒤 이에 대응하는 과목별 공부 방법을 소개했다.

초·중·고등학생의 학년별·개인별 수준에 맞는 구체적인 학습법을 다양한 예시를 들며 설명했다. "모국어(국어)와 외국어(영어), 외계어라 불리는 수학 등 모든 공부의 시작은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라며 특히 국어 공부와 다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1% 공부의 핵심은 연습이며 혼자 읽는 힘을 키우것도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중1 자녀를 둔 신태연 씨(고잔동)는 "이병훈 강사의 강의를 듣기 위해 서울에 다녀왔는데 그 강의보다 더 알찬 강의였다. 매우 현실적이고 각자 눈높이에 맞는 세세한 강의에 완전 공감했다. 안산에서 이런 좋은 강의가 열렸다는 것만으로 감사하다."고 했다.

◇ 문의 : 중앙도서관(031-481-3864)  
신선영 명예기자\_woghkah@hanmail.net

## 안산시 청소년 14명 '자기도전' 포상

###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하여 성취하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관장 김낙준)의 '꿈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지난 12월 2일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주관하고 경기도문화의전당 꿈꾸는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7회 청소년자기도전성취포상제 포상식에 참석해, 14명의 청소년이 포상을 받았다.

청소년자기도전 포상제는 우리나라 만9~13세(초등학교 3학년 ~ 중학교 2학년)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신체활동, 봉사활동, 자기개발활동, 탐험활동의 4가지 영역에서 진행되며,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하여 성취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이 속한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과 조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기르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4가지 영역의 프로그램 도전활동에서 신체활동인 축구, 봉사활동인 수련관 주변 환경정화활동, 자기개발활동인 공예 & 아트, 탐험활동인 '걸어서 안산 생태 속으로'를 진행했고, 성취활동으로 '난타'를 편성·운영했다.

포상제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포상제에 도전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어 포기하고 싶었지만 내가 세운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포기하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도와주신 많은 선생님들이 있어 끝까지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낙준 관장은 "방과후아카데미 참여 청소년들이 다양한 체험을 통해 한층 더 성장하는 청소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가 청소년들의 훌륭한 성장사례로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 문의 : 안산시 청소년 수련관 꿈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031-412-1741)

## 안산시 청소년수련관

### 청소년자치참여기구 '점핑' 위원 공개 모집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관장 김낙준)이 청소년자치참여기구 제14기 점핑(Jumping) 청소년운영위원회 위원을 모집한다.

점핑은 '꿈을 향해 도약하는 청소년'이라는 뜻으로 청소년 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청소년수련관 시설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 및 청소년 활동 홍보, 자체 기획활동 등의 활동을 꾸준히 실시하게 된다. 청소년이 원하는 청소년수련관이 되도록 하겠다는 목표다.

여성가족부가 주최하고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가 주관하는 2017 전국 청소년운영위원회에서 우수 청소년운영위원회로 선정되었던 점핑 청소년운영위원회는 2018년 1월 10일까지 14기 위원들을 모집하고 있으며 1차 서류 심사와 2차 면접 심사를 통해 20명의 위원을 선발할 예정이다.

안산시에 거주하는 9세부터 24세의 청소년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며 선발된 청소년 운영위원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에 따라, 청소년을 대표하여 목소리를 내고 시설과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며, 정기 회의, 분과별활동, 리더십캠프, 타 지역 청소년운영위원회와의 교류활동, 소양교육, 소식지 제작 등 1년 동안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안산시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www.ansanyouth.or.kr)를 참고하면 된다.

◇ 문의 : 안산시청소년수련관 활동진흥팀(031-412-1723)

# 우리는 자랑스러운 안산시 학생 명예기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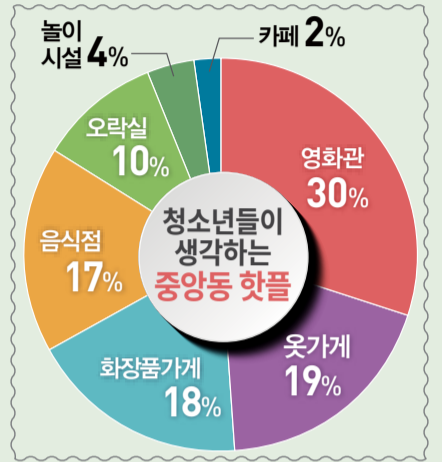


**이예나**  
(석수중학교)

## 청소년이 뽑은 중앙동 핫플레이스 영화관 옷가게 화장품 가게 순으로 나타나

12월 8일 석수중학교에서 90명의 학생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진행됐다. 주제는 '중앙동하면 생각나는 핫플(핫플레이스)'이었다. 우드락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앙동의 대표적인 장소인 놀이 공간, 영화관, 화장품 가게, 카페, 옷가게, 음식점, 오락실을 적어 놓은 후 학생들이 생각나는 장소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 놓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가장 많은 표를 얻은 1위는 영화관이었다. 영화관은 30표를 받아 학생들의 표를 얻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남녀학생 모두에게 고른 지지를 받았다. 중앙동에 있는 대표적인 영화관은 '메가 박스'와 '롯데시네마'가 있다. 2위로는 패션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 찾는 옷가게가 17표를 얻었으며, 3위는 여학생들이 많이 가는 화장품가게였다. 대표적으로 '이니스프리', '네이처 리퍼블릭', '에뛰드 하우스' 등이 있다. 4위는 3위와 1표 차이로 음식점이 차지했다.

뒤따라 5위로는 오락실이 되었다. 오락 시설에는 PC방과 인형 뽑기, 오락이 들어 있다. 6위는 놀이시설이다. 디스크 팡팡, 노래방, 방 탈출 등을 말한다. 마지막 7위는 카페였다.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청소년들이 중앙동하면 생각나는 장소에 대해 알 수 있었으며, 청소년들이 중앙동에 가서 주로 하는 일(놀이)과 주로 가는 장소도 파악할 수 있었다.



**박수현**  
(양지중학교)

## 양지중 1학년 1반의 특별한 수업 이야기 학부모교사, 천연비누 · 당도측정 수업

12월 14일, 양지중학교 기말고사가 시작되는 날. 자유학년제를 보내고 있는 1학년들은 시험 대신 진로탐색으로 보냈다. 1학년 1반도 오전동안 진로탐색 수업이 진행됐다. 한 학생은 "수업이 일찍 끝나는 것도 좋지만 오늘 수업은 학부모님이 진행해 주신다는데, 어떤 분이 오셔서 수업을 해 주실지 무척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날 수업은 천연비누 만들기 와 당도측정이었다. 학부모님들은 이 수업을 위해 직접 연수에 참가해 교육을 듣고 수업을 진행했다. 1교시 천연비누 수업은 1반 김택준 학생의 어머니인 김경애 일일교사가 담당했다. 친구 어머니가 진행하는 만큼 학생들은 더욱 집중했고, 열심히 비누를 만들었다. 김경애 일일교사는 "아이들은 직접 만든 비누를 챙기며 환하게 웃을 때 가장 뿌듯하다"며 "수업 진행할 때 아이들이 굉장히 잘 따라주었고 한창 피부에 관심이 많은 나이에 천연비누를 함께 만들어 재밌었다."고 말했다. 2교시는 박소형 학생의 어머니인 이진아 일일교사의 당도 측정 실험 수업으로, 여러



음료수들을 이용했다. 음료수는 탄산, 커피, 아동용 등 종류가 다양했고, 학생들은 처음 보는 당도계에 신기하고 호기심 많은 모습을 보이며 실험에 집중했다. 당도 측정과 더불어 음식에 대해서 강의한 이진아 일일교사는 "첫 수업이라 어색하고 힘들었지만 아이들이 모두 즐겁게 참여해주어 고마웠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이 직접 수업에 참여한 것에 대해 이진아 학생은 "더욱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었고, 몰입도가 높아졌던 것 같다"고 말했다.

**최혜원**  
(원일중학교)

## 페이스북 안산소식 '스쿨어택' 소개 댓글 많이 단 학급에 치킨 쏜다!

안산 청소년들의 주 관심거리인 스쿨어택은 페이스북 '안산소식'에서 운영하는 이벤트다. '안산소식'은 안산에서 일어나는 소식, 문제점, 행사 등을 소개하고 안산시민들과 소통하며 함께 나누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현재 약 110,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 '안산소식'의 스쿨어택은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반 아이들이 함께 협동하여 앙식대로 응모 하면 당첨이 되는 방식이다. 학생들에게 사전에 알려주지 않고 당첨된 중·고등학교를 찾아가 치킨, 떡볶이 등을 무료로 배달해준다. 현재 시즌2가 진행 중으로 시즌1 보다 반응이 더욱 뜨겁다. 지금까지 선일중, 원일중이 당첨됐다. 원일중 2학년 고은주 학생은 "좋은 추억이 되어서 좋았고 음식도 맛있었다. 피곤하고 지친 학교생활에 깜짝 선물로 찾아와서 정말 좋다. 우리가 함께 해냈다는 자부심도 있다."고 했다. 또한 현장을 찾아와 당첨된 학생들이 음식을 먹는 모습



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다시 페이스북에 게시하는 것도 관심이 높았다. 제공되는 음식은 모두 무료로, 안산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젊은 청년 사업가들이 후원한다. 전해주는 사람도 먹는 사람도 즐거워지는 이벤트로 주목받고 있다. 응모방법은 '안산소식' 페이지 스쿨어택 게시물의 학급 친구들을 언급(태그)하여 최대한 자기반 학생들이 댓글을 많이 달면 당첨되는 방식이다. 스쿨어택 관리자는 "공정한 당첨을 위해 하나하나 댓글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좋은 취지로 진행되는 스쿨어택에 더 많은 중·고등학생들이 관심과 참여가 있기를 바란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 문화재단, '안녕?! 오케스트라' "스승과 제자가 함께 협연한 따뜻한 무대였다"



안산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꿈의 오케스트라 '안녕?! 오케스트라'가 지난 11월 25일,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서 정기연주회 '팬텀 오브 디 오케스트라(Phantom of The Orchestra)'를 열었다.

'꿈의 오케스트라'는 아동과 청소년들이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상호학습과 협력을 배우고 다면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예술교육사업이다.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과 다문화 가정 아이들의 만남이 MBC 다큐멘터리에 소개된 후 안산문화재단 주관으로 시작됐으며, 2013년 45명에서 현재 67명의 아이들이 참여하고 있다.

5년여를 함께해온 아이들과 올해 첫 발을 내딛은 아이들이 함께 준비한 2017 정기연주회는 '팬텀싱어'의 황현한, 최진호가 게스트로 참여했으며, 스승과 제자가 함께 협연하는 따뜻한 무대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객석에서 금관악기를 들고 무대로 등장한 아이들이 비엔나 행진곡을 연주하며 1부를 시작했고, 올해 경기예고에 합격한 정다희·조현진 학생은 무반주 첼로와 바이올린 독주로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특히 자신의 몸집보다 큰 콘트라베이스를 연주하고 클라리넷과 플루트를 부는 아이들 뒤에서 강사들이 연주하는 제자와 스승의 협연무대가 큰 호응을 얻었다.

2부에서는 팬텀싱어의 황현한, 최진호 테너가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와 '지킬 앤 하이드' 주제곡으로 매력적인 목소리를 발산했으며, 이어 창단 이후 처음으로 심포니 전 악장에 도전, 오케스트라 전원이 무대에 올라 하이든의 놀람 교향곡을 연주했다.

박준범 음악감독은 "30분이 넘는 곡에 집중한다는 것은 아이들에게는 큰 도전이었습니다. 음악적인 감성과 테크닉이 모두 들어있는 수준 높은 교향곡을 연주하고 나면 실력이 부쩍 늘게 되고, 아이들 스스로도 음악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집니다."라며 "악보 보는 법도 모르던 아이들이 책임감과 협동심을 배우며 음악이라는 꿈을 향해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보람을 느낍니다."라고 했다.

◇ 문의 : 안산문화재단 지역문화부(031-481-0526)  
신선영 명예기자\_woghkah@hanmail.net



### 반려견과 함께 하는 삶②

## "반려견은 가족, 놀리지 말자"

### 반려견 산책 요령과 페티켓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며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삶 속으로 들어온 반려동물. 하지만 최근 잇따라 발생한 사고로 인해 비반려견 국민들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한 동물 행동전문가의 조언을 소개한다. '페티켓과 위기 대처 요령'을 다뤘던 전편에 이어 이번호에는 '안전하고 즐거운 산책 요령'에 대해 소개한다.

프렌치불독과 퍼그를 키우고 있는 김형남 펫스토어 대표는 "개인적으로 불독을 좋아하는데, 산책할 때 예기치 않은 일들로 힘들고 속상한 경험들이 있다. 불독은 원래 몸이 무겁고 뚱뚱한 체형인데 길에서 만난 사람들이 돼지라고 놀린다. 한편 우리나라에는 불독을 위한 입마개개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조심하며 다니는데 다짜고짜 욱부터 하는 경우가 있다."며 "반려견은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주는 도구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가족이다. 가족이 비웃음거리가 됐을 때 즐거운 사람은 없다. 그 관계를 인정하고 이해하며, 서로 조심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애견행동전문가 노일호 씨는 견주들의 책임감에 이어 비반려견 국민들의 예의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주인의 허락 없이 개를 놀려서 자극하거나, 만지거나, 먹이를 주는 것은 위험한 상황에 스스로 자신을 몰수 있는 행동이다. 개를 만지고 싶다면 반드시 견주에게 그 여부를 물어야 한다. 아이들과 함께 있는 경우 더욱 더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견주의 허락 없이 먹이를 주는 행위는 개의 건강과 직결되는 예의에 어긋난 행동"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산책할 때 행인을 향해 짓는 반려견에 대한 대처 요령도 소개했다. 그는 "행인의 입장에서 반려견이 자신을 향해 짓는다면, 개에게 시선을 주지 않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지나가는 것이 좋다. 멈칫 하거나 뛰어가면 개를 더 자극시킬 수 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견주가 최대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잘 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반드시 목줄을 해야 하고 만약 개가 행인을 향해 짓기 시작하면 그 자리에서 멈춘 후 개를 주인 곁으로 바짝 붙여야 한다. 불안한 마음에 짓는 것이므로 주인과 가까운 거리를 유지한 채 멈춰서 안정감을 찾도록 도와야 한다. 행인이 완전히 지나간 후 다시 움직여야 하며, 그동안 짓거나 으르렁거리지 않았다면 간식으로 보상을 주는 행위를 반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문의 : 해결사방문애견훈련소(031-296-5031)  
김희경 명예기자\_kepa-korea@hanmail.net





## 안산시 & 안산문화재단, 안산스마트허브 문화재생사업

### “희망 실은 공공미술, 공단에 빛을 밝히다”



안산시와 안산문화재단이 추진한 ‘안산스마트허브 문화재생사업’이 12월 6일, 판화·도예 작품 전시회와 조형 미술품 준공식을 가지며 마무리됐다.

안산시는 노동자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2014년부터 안산스마트허브의 기업과 노동자를 대상으로 아카데미, 찾아가는 문화택배, 공공미술 프로젝트 등 문화재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공공미술, 커뮤니티, 참여형 전시 등 세 가지가 마련됐다.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공단의 주요 공공시설인 원시119 안전센터와 스마트허브 어린이집에 조형 미술품을 설치하는 작업으로, 소방서 외벽에 설치한 ‘소방서 프라 모델(조립식 모형 장난감) - 퍼스트 인, 라스트 아웃(First in, Last Out)’은 화재 현장에 헌신적으로 뛰어드는 시민의 수호천사로서의 소방관들의 활약상을 표현했으며, 스마트허브 어린이집에는 고정관념이 없는 순수한 상태의 어린이가 그린 그림에 조명을 더해 ‘어두운 공단의 빛

을 밝힐 수 있는’ 상징물로 구현했다.

작품을 보던 아이는 “저 그림 내가 그렸는데...”라며 손가락으로 가리켰고, 아이의 손을 잡은 부모들은 “해가 지고 난 후 어린이집을 찾을 때마다 불 밝혀진 내 아이의 작품을 보면 뿌듯할 것 같아요.”라며 미소지었다.

‘커뮤니티 프로그램’은 스마트허브 내 기업에서 배출되는 하자품(瑕疵品)을 노동자의 기술력과 상상력을 토대로 새로운 창작품으로 재생하는 ‘노 굿(NO GOOD) 로컬 브랜딩 프로젝트’와 기업만의 독특한 정체성을 담아 팻말을 제작하는 ‘서브 이정표 프로젝트’도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안산산업문화창작소에는 노동자와 가족들이 참여한 판화와 도예작품이 전시됐다. 안산의 다양한 역사적 공간, 건축, 기념물(monument) 등 지역을 대표하는 이미지가 대형 판화 작품으로 표현됐으며 접시, 화병, 다과 세트 등 흙으로 빛은 다양한 생활도자기는 세상에 하나뿐인 수제품으로 태어났다.

이정숙 도예강사는 “도자기는 흙의 질감에 따라 표현 방법이 달라집니다. 두 달여 동안 재료에 대해 알아가며 빛의 감각을 익힌 수강생들은 ‘알만하니 끝난다’며 많이 아쉬워합니다. 열정과 예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많은 노동자들이 꾸준히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바랍니다.”고 했다.

안산시 관계자는 “스마트허브의 기업과 노동자에게 이런 긍정적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의미 있는 문화재생사업의 빛이 꺼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문의 : 안산시 산업정책과(031-481-2858), 안산문화재단 지역문화부(031-481-0525)  
신선영 명예기자\_woghkah@hanmail.net

## 단원미술관, 한국 추상화 1세대 장성순 특별전

### 안산시에 필생의 역작 207점 기증한 작가의 뜻 기려



단원미술관은 한국 추상미술의 1세대라 할 수 있는 장성순 작가의 작품세계를 집중적으로 소개하는 겨울기획전을 오는 2018년 3월 11일까지 마련했다.

이번 전시는 안산에서 활동한 장성순 화백이 필생의 역작 중 207점의 작품을 안산시에 기증한 뜻을 기리기 위해 특별전으로 열린다. 기증 작품 중 43점을 엄선해 스페셜 섹션의 5작품과 함께 총 48점을 선보이며, 스페셜 섹션에는 장성순 작가뿐

만 아니라 1세대 한국 추상화를 이끌었던 김창렬, 정창섭, 윤명로 등의 작품이 함께 전시된다.

이번 특별전은 ‘모더니스트 장성순, 삶은 추상이어라’라는 주제로 크게 세 개 섹션으로 구성된다. 제1섹션은 ‘추상: 무한한 정신과 자유’라는 이름으로 1970년대에서 80년대에 그려진 돌의 정서가 다양한 화풍을 경험할 수 있다. 제2섹션에서는 ‘추상: 굿는다’는 주제로 1990년대 장성순의 과감한 색면 배치와 거침없는 선들이 춤을 추는 한국추상의 참맛을 살필 수 있다. 제3섹션에서는 ‘추상: 집념의 회화’를 주제로 2000년대의 왕성하고 엄청난 확장력을 지닌 장성순을 만나게 한다.

장성순 작가는 어릴 적 앓았던 심한 중병으로 청력을 서서히 잃어버리는 수난 속에서 ‘추상’을 대면했던 작가였다. 결국, 청력이 문제가 되어 서울대에서의 미술 수학을 끝내지 못했다. 이후 이쾌대, 이봉상이라는 한국 미술사의 거두를 스승으로 삼으면서 다양한 미술적 자양분을 얻었다.

미술 관계자들은 “장성순의 작업에서 어떤 비장미를 만나고 형성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작가 자신의 강한 현실극복과 그에 따른 생존방식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건강상의 이유로 최근 작업의 어려움에 다다르기까지 평생을 오로지 추상으로 삶의 문제를 직시해 온 그의 인생여정은 작품의 무게만큼이나 담담하고 숙연하기까지 하다.”고 평가한다.

◇ 문의 : 단원미술관 전시사업부(031-481-0504)  
이선희 명예기자\_jiamyou70@hanmail.net



## 안산문화재단

# 청년예술인 정보 수록 책자, '가마솥' 발간



안산의 청년문화예술인 정보가 수록된 맵 북(Map Book)이 발간됐다. 네트워킹을 통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하자는 의미로 시작한 안산문화재단 '청년아트' 사업의 하나다. 책에는 발굴자를 포함

들을 많이 접하고, 같은 장르 예술인들과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됐다. 비보잉과 대금 연주의 협업 같은, 장르 간 경계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형태의 창작물을 만들어 보자는 이야기를 나누는 등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비보잉 '와일드몽키즈'를 운영하고 있는 황원준 대표(34세)는 "서로 다른 장르 예술인들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진 것 같아 좋다."며 "현장에서 뛰는 사람으로서 공연을 계속 하다보니 예술인 맵북에 오르게 됐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번 책 발간은 장르와 장르가 서로 섞이며 예술인들의 이해를 넓히는 기회이자 지역 예술인과 관련 기관 사이의 정보공유와 네트워킹 자료로 쓰일 전망이다.

◇ 문의 : 안산문화재단 전시사업부(031-481-4044) 이선희 명예기자\_iamyou70@hanmail.net



해 안산에서 활동하는 연극, 무용, 비보잉(Breakdancing boying), 생활공예, 사진, 팝아트, 일러스트, 도예, 회화 등에서 활동하는 청년 문화예술인 80여 명의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청년아트'는 안산문화재단이 3년째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올해는 청년문화예술인들 정보를 체계화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모두 23명의 청년예술인들이 새로운 인물 발굴에 함께했다.

청년예술 네트워크 형성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이 직접 지은 책의 부제 '가마솥'은 가족의 마음으로 소통의 밥을 짓고,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는 사람인 식구처럼 지역 예술인들을 가족으로 생각하자는 의미를 담았다. 더불어 발간 기념 공연도 마련됐다.

문화재단 관계자는 "발굴에 직접 참여하고 발굴자와 등재된 예술가들이 스스로 기획해 무대에 올리는 일은 거의 드물다. 예술인 스스로 만드는 장이어서 참여도나 재미를 느끼는 부분이 훨씬 컸다."며 "다른 장르의 예술인

##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2017년 제2분기 자동차세 부과-

안산시는 2017년 12월 1일 안산시에 사용본거지를 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제2분기 자동차세를 부과했다. 납부기한은 2018년 1월 2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에 방문하여 직접납부 또는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ARS전화(상록구 1588-5128, 단원구 1588-6128)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경기도의 납세자라면 이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스마트 고지서'를 통해서도 고지서를 받고 납부 할 수 있으며, 궁금한 점은 대화형 상담까지 할 수 있다.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변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 문의 : 상록구청 세무1과(031-481-5195) 단원구청 세무1과(031-481-6190)

## 저소득층 암환자의료비 연중지원

안산시는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치료율을 높이기 위하여 의료비를 연중 지원한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국가 암 검진 사업으로 암을 진단 받은 환자에게 암 진단부터 치료까지 연속적으로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치료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크게 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만18세 미만의 소아암 환자이다.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은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의 암환자 중 국가 암 검진을 통해 발견된 5대암(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과 폐암 진단 환자이며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급여 본인일부부담금에 한해 의료비를 지원한다.

◇ 문의 : 상록수보건소(031-481-5922), 단원보건소 (031-481-3469),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장애인자동차표지 교체

- 내년부터 종전 표지는 과태료 부과 -

안산시는 현재 사용 중인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교체·재발급이 오는 12월 31일에 완료된다고 밝혔다. 교체 대상자는 교체마감 기한 내에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해 반드시 사용 중인 주차가능 표지를 반납한 후 새로운 표지로 재발급 받아야 한다.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표지 교체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방문해야 하며,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족 등이 대리 신청·수령이 가능하다. 오는 12월 31까지 기존표지와 병행사용이 가능하나, 2018년 1월 1일부터는 단속을 통해 위반차량에 과태료(10만원)가 부과 될 예정이다.

◇ 문의 : 안산시민원콜센터(1666-1234)

## 안산시 고혈압·당뇨병등록교육센터

# 식사체험교실... "균형 잡힌 식사로 당뇨병 막아요"



신체 내 에너지원으로 사용돼야 할 당이 소변으로 배출되는 당뇨병은 식생활을 바꿈으로써 예방도 가능하고 발병도 늦출 수 있다. 안산시 고혈압·당뇨병등록교육센터는 지난 2월부터 '식사체험교실'을 열고 매주 10명씩 안산시민 400명을 대상으로 식사관리를 통한 혈당 조절 교육을 진행해 왔다.

12월 6일 교육에 참여한 윤인수(73세) 씨는 "30년 넘게 배관 기술자로 일해 왔는데 최근 당 수치가 높아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퇴짜를 맞았다. 그동안 밥심으로 일한다고 매 끼니 탄수화물 위주로 많은 양의 식사를 한 것이 당뇨병의 원인 중 한 가지임을 알게 됐다."며 "오늘 배운 대로 실천해 건강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밥, 떡, 빵, 국수, 목 등 탄수화물 식품은 섭취 후 포도당으로 분해돼 우리 몸의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로 쓰이고 남는 것은 간에 저장된다. 이때 포도당이 에너지로 바뀌는데 없어서는 안 될 호르몬이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이다. 인슐린은 포도당을 에너지로 바꾸지만 처리 능력 이상의 포도당이 계속해서 혈관에 흐르면 어느 한순간 손을 놓아버리고 더 이상 기능하지 않게 된다. 이를 당뇨병이라 하며, 높아진 혈중 포도당 농도는 망막병증과 신기능장애, 신경병증, 심혈관계 질환 등 각종 합병증을 가져온다.

박성희 팀장은 "당뇨병은 식생활을 바꿔 체중을 5~7% 줄이게 되면 발병을 늦추거나 예방할 수 있는 만큼 내년에도 식사체험교실을 계속 진행해 안산시민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시 고혈압·당뇨병등록교육센터는 2017년 1회 이상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8,739명으로, 심뇌혈관질환 사업 경기도 평가에서 도지사상을 수상했다.

◇ 문의 : 안산시 고혈압·당뇨병등록교육센터(031-416-9088) 백미란 명예기자\_whity0218@naver.com



## 안산환경재단, 에너지복지사업으로 시민사랑 실천 고려인 가정 주거 개선... “릴레이로 사각지대 없앤다”



안산환경재단은 고려인 가정을 대상으로 2017년 에너지 복지사업을 완료했다. 2015년부터 시행된 에너지 복지 사업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산시의 소외 계층을 선정하여, 환경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한 시설 지원을 주된 내용으로 삼고 있다.

2017년에는 에너지 복지사업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사각 지대에 놓인 안산시 거주 고려인 가정을 지원 대상으로 정했다. 이들 고려인 가정 가운데 한부모 가정, 유아와 초등학생이 있는 가정, 기타 지원이 필요로 인정되는 가정 등의 기준으로 15가구를 선정했다. 최종적으로 시설 개보수 등의 지원에서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지 못한 가구를 제외한 11가구에 벽체 및 창호 단열지원, LED 조명 기구 교체, 보일러 배관청소, 악취제거 등 지원이 이루어졌다. 특히 안산소방서와 협력하여 대상 가구에 소화기, 화재감지기를 무료 제공하여, 화재 사고에 대응할 수 있

게 했다. 2017년 에너지 복지사업은 기존의 관습적으로 해오던 저소득 계층 지원에서 탈피하여, 두 차례에 걸쳐 심층 사전 조사를 통해 안산시의 에너지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을 발굴하여 사업의 본래 취지를 충실히 이행했다. 본 사업의 지원을 받은 고려인 가구의 한 어머니는 “추운 겨울을 더욱 따뜻하게 지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토피로 힘들어하는 아이에게 건강한 환경을 만들어 준 것”에 큰 고마움을 표했다.

이번 사업에 대해 시민에너지센터추진팀 신진옥 담당자는 “에너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고려인 가정을 발굴, 우선 지원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에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며 에너지 복지 사업의 불평등 해소에 일조한 것에 보람을 느낀다”고 설명했다.

◇ 문의 : 안산환경재단(031-599-9422)

## ‘2017 안산시 장애인 체육인의 밤’ 성료 유공자 및 우수 선수 표창

유도 홍은미 '최우수' 보치아팀 '최우수 단체상' 수상  
안산시장장애인체육회는 12월 12일 아도르웨딩홀에서 '2017 안산시 장애인 체육인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안산시장, 안산시의회 의장, 안산시의원, 경기도의원 및 장애인 선수, 장애인 체육활동 후원자 등 총 200여명이 참석했다. 올해 장애인체육회의 다양한 활동 보고로 시작한 이날 행사는 장애인체육 발전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 및 국내·외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에 대한 표창,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사랑의 후원금 전달식 등으로 진행됐다.

‘최우수 선수상’은 삼순테슬림픽에서 은메달과 동메달을 획득한 유도의 홍은미 선수가 수상했으며, 각종 대회에서 뛰어난 기량을 발휘하며 대한민국 보치아 국가대표 선수를 5명이나 배출한 보치아팀이 ‘최우수 단체상’을 수상했다.

안산시 관계자는 “2017년은 장애인 수영 이인국 선수의 접영 100m 세계신기록 수립 등 국·내외에서 안산시 장애인 선수들이 빛나는 한해였다”며 “훌륭한 모습을 보여준 선수들에게 찬사를 보내며, 앞으로 다가오는 2018년도 선수 여러분이 꾸준히 성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UN	MON	TUE	WED	THU	FRI	SAT
01	1	2	3	4		
<h3>Culture Calendar</h3> <p>문의 : 안산문화재단(080-481-4000), 경기도미술관(031-481-7000) 단원미술관(031-481-0505)</p>						
7		9	10		12	13
<p><b>&lt;가족뮤지컬&gt;엄마까투리</b> 일시 1. 13. ~ 1. 14. 11시, 2시, 4시 장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달맞이극장</p>					<p><b>장성순 기증 특별전&lt;모더니스트 장성순, 삶은 추상이어라&gt;</b> 일시 2017. 12. 12. ~ 2018. 3. 11. 장소 단원미술관</p>	<p><b>2018 윤종신 좋니? 전국투어 콘서트</b> 일시 1. 13. 18:00 장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해돋이극장</p>
<p><b>생생화화2017 &lt;이면 탐구자 Inside Out&gt;</b> 일시 2017. 12. 15(금) ~ 2018. 3. 25(일) 장소 경기도미술관 기획전시실</p>		24	25	26	27	
		<p><b>무용 &lt;Don't Do(돈 두)&gt;</b> 일시 1. 24. 19:30 장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달맞이극장</p>	<p><b>연극 &lt;그의 하루&gt; 기획공연</b> 일시 1. 25. 14:00 / 19:30 장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별무리극장</p>	<p><b>발레 &lt;빨간구두&gt; 기획공연</b> 일시 1. 26. 19:30 장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해돋이극장</p>	<p><b>아동극 &lt;토끼잔&gt; 기획공연</b> 일시 1. 27. 14:00 / 17:00 장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달맞이극장</p>	
		31			<p><b>2017 안산시 송년음악회 공연</b> ◇일시: 2017. 12. 28.(목) 19:30 ◇장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해돋이극장 ◇주최: 안산시 ◇관람료: 무료 ◇출연진: 거미, 정동하, 안산시립합창단·국악단, 그루브어스, 라이징스타</p>	



제245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15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 사진은 이날 본회의 중 한 장면.

## 제245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 15일 제2차 본회의서 시정질문 실시 및 2018년 본예산 등 의결 ‘지방분권 개헌 실현 촉구 결의안’ ‘4.16 기본조례 수정안’도 처리

안산시의회가 12월 15일 제24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질문을 실시하고 상임위원회별 심의 안건과 ‘2018년도 예산안’, ‘지방분권 개헌 실현 촉구 결의안’ 등을 의결하며 지난달 24일부터 진행된 회기를 마무리했다. 처리 결과에 관심이 쏠렸던 ‘4.16 정신을 계승한 도시비전 수립 및 실천에 관한 기본조례 주민청구 조례안’도 수정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회의에 따르면 의회운영위원회는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체육시설 이용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의사상자에 대해 사료료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을 수정 가결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한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3건은 원안 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안산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의 내용 중 고려인 주민 지원위원회의 설치를 임의규정으로 수정해 가결하는 등 2건의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으며,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자에게 사업을 위탁하는 내용을 담은 ‘안산시 상록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비롯한 동의안 2건은 원안 가결했다.

도시환경위원회도 상위 법령에 규정돼 있지 않은 사항을 조례로 정한 것에 대해 정비하는 내용인 ‘안산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

결한 것을 포함해 총 4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우 시가 제출한 2조1천464억7천56만6천원의 ‘2018년도 예산안’ 중 434억7천966만2천원을 삭감해 수정 가결하고,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각각 수정 가결 및 원안 가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강화해 진정한 의미의 국민 주권이 실현되도록 완전한 지방분권형 개헌을 촉구하는 ‘지방분권 개헌 실현 촉구 결의안’(대표발의의원 정승현)과 ‘4.16 정신을 계승한 도시비전 수립 및 실천에 관한 기본조례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대표발의의원 성준모)도 각각 의결됐다.

특히 4.16 기본조례는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된 바 있으나, 본회의에서 수정안이 발의돼 찬반 토론과 표결을 거친 끝에 가결됐다. 안건 의결에 앞서서는 홍순목, 윤태천, 성준모, 손관승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으며, 김진희, 홍순목, 정승현, 유화, 전준호 의원은 시 집행부를 상대로 각각 △인구 감소 대책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취약지구 해제 방안, △통일 대비 남북교류 확대 위한 정책 수립, △사동 90블록 주택건립 사업 추진 과정, △친환경 농축수산물 생산 및 소비 증대 방안 등에 대해 시정질문을 실시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를 주재한 이민근 의장은 폐회사에서 시 집행부의 예산편성에 따른 사전절차 이행 철저를 강조한 뒤 “시민 모두가 따뜻하고 행복한 연말연시를 보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제245회 정례회 처리안건 목록

1.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원안가결)
2.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수정가결)
3.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원안가결)
4. 안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원안가결)
5. 안산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수정가결)
6. 안산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수정가결)
7. 안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안가결)
8. 안산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수정가결)
9. 안산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수정가결)

10. 안산시 상록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원안가결)
11. 안산시 생태관광 육성 및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원안가결)
12. 안산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원안가결)
13.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이견 청취이건(원안가결)
14. 안산시 야간경관 기본계획 및 세부실행지침 수립안 의회이견 청취이건(원안가결)
15.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안가결)
16.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기행-원안가결 / 문북-수정가결)
17.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수정가결)
18. 2018년도 예산안(수정가결)
19.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원안가결)
20. 지방분권 개헌 실현 촉구 결의안(원안가결)
21. 4.16 정신을 계승한 도시비전 수립 및 실천에 관한 기본조례 주민청구 조례안(수정가결)



안산보육비전 2020 연구회 소속 의원들과 관계자들이 연구활동을 마무리한 뒤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안산희망발전소 의원과 관계자들이 안산시 미래성장동력 제고를 위한 청년정책연구를 마친 뒤 기념 촬영을 했다.

##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 활동 ‘마무리’

### 보육비전연구회 · 희망발전소 · 복지정책연구회 보고서 심사 앞두고 각각 최종회의 열어 연구 내용 정리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안산 보육비전 2020 연구회’와 ‘안산희망발전소’, ‘안산시 복지정책 및 시설확충 개발 연구회’가 최근 연구 활동을 마무리하는 회의를 각각 갖고 활동 결과 보고서 초안을 마련했다. ‘안산 보육비전 2020 연구회’(연구책임의원 유화)는 지난 27일 저녁 연구 실적을 정리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역 보육 환경 개선과 정책 개발을 위해 구성된 안산시 보육 비전 2020 연구회는 유화, 김정택, 김진희, 송바우나, 윤석진, 이상숙 의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의원들이 그동안의 활동에 대한 소회를 밝히고 연구 보고서에 담아야 할 내용들을 협의했다. 안산 보육비전 2020 연구회는 이번 활동보고서에 △영유아의 권리와 행복증진을 위한 시스템 개발, △취약계층 영유아들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할 강화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한 보육예산 확보 △학부모 양육기술 지원 등을 보육 정책 발전을 위한 제언으로 담기로 했다.

이보다 앞서 ‘안산희망발전소’(연구책임의원 전준호)도 지난 24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의원들 간 연구 활동 결과 보고서 내용을 공유했다.

안산희망발전소에는 전준호, 김동수, 나정숙, 박은경, 송바우나, 주미희 의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희망발전소는 그 동안 안산시 미래성장 동력 제고를 위한 청년 정책을 연구해 온 가운데 지난 9월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 제정을 통해 청년 정책의 제도적 지원 토대를 마

련하는 성과를 거뒀다.

‘안산시 복지정책 발굴 및 시설확충 개발 연구회’(연구책임의원 홍순목)도 연구활동 보고서 채택을 앞두고 지난 23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최종 회의를 개최해 보고서 내용을 논의했다. 홍순목, 김동규, 성준모, 윤석진, 윤태천, 이상숙 의원이 참여하고 있는 안산시 복지정책 발굴 및 시설확충 개발 연구회는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정기적인 조사 및 원인 분석 실시와 △사회복지 시설의 네트워킹 및 효율적 서비스 전달을 위한 협의기구 설치 등을 복지 정책 분야의 제언으로 제시하고 복지 시설별로도 개선 방안을 보고서에 실기로 했다.

지난 1년 동안 연구단체 활동에 참여한 의원들은 지역 발전과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댄 시간들에 의미를 부여하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의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연구단체 3곳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오는 12월 중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한다는 계획이다.



안산시 복지정책 및 시설확충 개발 연구회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사진촬영을 했다.



## 폐경기 여성의 관리



의학 칼럼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한다. 여성들이 그 나그네 길을 가는데 3분의 1 이상을 함께 해야 하는 것이 폐경기다. 여성의 평균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폐경기로 지내는 기간도 역시 증가했다.

여성의 평균수명은 83세로, 그 중 약 27~28년을 폐경기로 보내게 된다. 그렇기에 폐경기 장애는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질환이라 할 수 있다. 폐경에 따른 증상이나 장애는 과거에 여자의 일생 중 피할 수 없는 단순한 노화과정으로 여겨왔다. 그러나 지금은 이를 병적인 현상으로 간주하여 치료의 대상으로 받아들인다. 폐경기 여성의 관리는 이제 중요한 의학적,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폐경이란 월경이 영원히 종식되는 현상을 말하고 갱년기란 폐경이 오기 전 약 5~10년 정도의 기간을 말한다. 폐경이 되면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호르몬의 결핍으로 인해 육체적, 생리적, 정신적으로 많은 변화가 온다. 여성의 약 25%는 45세 이전에 자연적 또는 인공적으로 폐경을 맞게 되고, 약 50%는 45세에서 50세 사이

에 폐경기가 오며, 나머지 25%는 50세 이후에 폐경기가 온다. 여성이 35세가 되면 난소는 무게와 크기가 작아지기 시작하여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점차적으로 감소하게 되고 이에 난소의 기능이 떨어지면 폐경이 오는 것이다.

폐경의 초기증상으로는 혈관운동 증상으로 얼굴이 화끈화끈 달아오르거나, 가슴이 두근두근거리며, 잠을 잘 못 자고 가슴이 답답하기도 한다. 또한 땀이 많이 나고 쉽게 짜증이 잘 내는 것도 증상 중 하나다. 또 기억력이 감소하고 우울하며 불안이나 초조감도 많다. 손발이 저리고 뼈마디가 아프기도 하며, 3~4년이 지나면 비뇨생식계의 위축증상으로 빈뇨와 요실금이 잘 생긴다. 질 주위가 건조하고 성욕이 감소하며 부부관계 시 불편을 느끼기도 한다. 5년 이상이 되면 골다공증으로 인해 손목, 대퇴부, 골반뼈 등에 골절이 잘 오며, 이로 인해 허리가 굽어 '꼬부랑 할머니'가 되는 것이다.

폐경기 증상의 원인은 여성 호르몬의 고갈에 의한 것이다. 그렇기에 가장 효과적인 치료는 에스트로겐을 적당량 보충해 주는 것이다. 호르몬 대체요법을 실시하면 안면홍조나 오한 같은 혈관운동 증상이 없어지고 비뇨생식계의 상피세포도 비후해져 통증과 요실금이 호전된다. 또한 말기 합병증으로 나타나는 심장병과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다. 호르몬은 약 5~10년 정도 장기간 복용하는 것이 좋다. 단, 호르몬 투여 전에 혈압, 간기능, 유방암, 자궁경부암, 골밀도 검사 등을 반드시 해야 한다. 호르몬 제로는 알약, 몸에 붙이는 패치, 바르는 겔, 질정, 질 크림 등 여러 가지가 있어 사람에 따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태반주사도 치료에 효과가 있다.

• 서안산노인전문병원 안성탁



## 모두가 알아야 끊는다



금연수기



처음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 것은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과 함께였다. 하루에 두 갑씩 고박고박 거의 40년을 피웠다. 오늘은 "일 때문에" 내일은 "사람 때문에" 핑계도 많았다.

그러던 중 아이들이 아빠의 흡연에 대해 "몸에 안 좋은데 왜 피우나" 하는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고, 점점 집안 흡연이 눈치가 보였다. 그렇게 안방에서

거실로 다시 화장실로 그리고 계단을 지나 결국 야외까지 옮겨갔고, 그만큼 아빠의 입지는 좁아졌다.

어느 날 딸이 "아빠! 안방 화장실에서 담배 폈지?" 하며 물었다. 너무 추운 겨울날 어찌다 한번, 환풍기까지 켜고 폈는데, 마치 초등학교 때 숙제검사 하시던 선생님의 모습을 딸에게서 보았다. 그 후로도 아내는 "이제 담배 끊죠?" 아들은 "아빠, 안 피면 안 돼?" "아빠, 담배냄새나!" 등등 잔소리가 심해지며 금연을 결심했다.

1월 1일 새해 금연결심을 하지만 1개월이 지나면 또 피우고, 설날을 맞아 금연을 결심한 후 1개월이 지나면 또 다시 피우고, 결혼기념일이라고 결심했다 보름이 지나면 피우고... 내 결심은 언제 깨질지 모르는 유리화 같았다.

그렇게 작심삼일이 반복되던 중 내 의지만의 금연에서 생기는 문제를 발견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나도 모르게 아내에게 시비를 거는 것이었다. 별 일 아닌 일로 화를 내고, 그 핑계로 밖으로 나와 담배를 피웠다. 그리고는 "당신이 화나게 해서

담배를 못 끊어" 하며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이렇게 악순환과 아내에 대한 실망이 이어질 무렵 문득, 금연에 성공한 형님의 말씀이 생각났다. "담배는 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안 피우면 된다."

불현 듯 떠오른 정답마냥 가슴에 와 닿은 그 말을 떠올린 다음날 아침, 마침 아내가 "보건소에서 금연상담도 한다네요."라며 추천했다. 보건소로 향했고, 담당자들은 친절하게 상담하며, 나약한 의지를 보강할 금연패치, 입 냄새 제거 사탕 등을 제공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들리라는 당부와 함께.

우선 금연패치를 붙이고, 입에는 사탕을 물었다. 그리고는 컴퓨터를 켰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다음 카페를 개설했다. 이름은 '금연할거야', 카페를 만든 즉시 휴대폰에 있는 모든 이에게 문자를 보냈다.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저는 담배를 끊습니다. 다음 카페에 그 과정을 올릴 테니 많이 응원해주세요"

그 후 만나는 사람들은 "담배 아직 안 펴?"라며 안부를 물었고, 전처럼 금연의지를 시험하거나 담배를 권하지도 않았다. 잘할 땐 잘하고 있다고 올리고, 너무 힘들 땐 몸과 감정 상태를 적어 남들에게 알렸다. 그것만으로 큰 위안이 됐다. 힘든 도전을 할 때 혼자라는 외로움이 더 힘들게 했고, 반면 주변의 응원과 칭찬은 큰 힘이 됐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다. 사랑하는 가족들의 애정어린 질책, 스스로의 반성, 보건소의 지원, 아이디어 그리고 나의 큰 결심 이 모든 것들이 서로 잘 맞아서 금연에 성공할 수 있었다. 아직도 가끔 담배피우는 꿈을 꾸고, 가끔은 담배 냄새가 향긋할 때도 있지만 이렇게 생각한다. "담배를 끊는다고 생각하면 못 끊는다. 담배는 끊는 게 아니라 그냥 안 피울 뿐이다."

• 배재희

## 기업과 구직자, 너와 나의 연결고리



안산시는 '기업에게는 맞춤형 인재, 구직자에게는 안정된 직장'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전문 일자리 발굴단을 운영하고 있다. 시민들의 인생에서 직업이 가지는 중요성이 매우 큰 만큼 사명감도 크며, 안산·시흥스마트허브가 있는 특성을 발판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높았다.

나는 3인조로 이루어진 팀에서 일하고 있다. 우리팀은 기업의 구인정보를 시민들에게 생생하게 제공하자는 의미로 '기업 생생 정보통'이라는 팀명을 사용하며, 유료 직업정보를 이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우리시에서 시행 중인 일자리 사업을 홍보한다. 사례 하나를 소개한다. 어느 날 한 업체로부터 생산직을 구한다는 소식을 듣고 기업의 사전 조사와 인사담당자 미팅까지 마친 후 적합한 구직자를 찾던 중 한 여성의 프로필이 눈에 띄었다. 전화를 통해 대화 하면서 그분의 구직활동에 대한 간절함과 진심이 느껴졌고, 그래서 더욱 성심껏 구직정보를 안내했다. 그분 또한 나를 신뢰하는 듯 경청하는 자세였다. 이후 자연스럽게 회사에 대한 신뢰로 이어졌고 면접의사도 밝혔다. 바로 다음 날, 입사 지원을 했고 인사담당자로부터 면접제의도 받았다.

나는 면접 유의사항을 알려주고 자신감을 갖도록 용기를 북돋았다.

그리고 며칠 후 최종 합격해 출근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가장 보람 있는 순간이었다. 바쁜 와중에도 친절하게 구인 정보를 알려주신 인사담당자에게 감사했고, 내 이야기를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나선 구직자에게도 감사했다. 기업에게는 맞춤형 인재를, 구직자에게는 안정된 직장을 찾아 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경험, 기업 생생 정보통 구인발굴단의 직업상담사이기에 접할 수 있었던 기쁨이다. 오늘은 어떤 새로운 기업을 만나게 될까? 그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는 어떤 사람일까? 기대감과 함께 매일 긍정적 고민을 한다. 이는 매우 가치 있는 고민이며, 나를 고무시키고 발전시킨다.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런 조언을 했다. "한국의 학생들은 하루 15시간 동안 학교와 학원에서 미래에 필요하지 않을 지식과 존재하지도 않을 직업을 위해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그의 조언처럼 이제는 다가오는 미래와 동반하는 직업의 흐름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 이진주 직업상담사(일자리 발굴 생생정보통)

## 화정영어마을과 페낭 국립고 협약을 축하하며



안산시 화정영어마을이 말레이시아 페낭의 부킷 잠불(BUKIT JAMBUL) 국립고등학교와 프로그램 운영 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을 듣고 반가운 마음에 쓴다. 영어를 무조건 잘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영어를 잘한다면 그건 개인의 재산이고 경쟁력이며 국가나 사회적으로도 쓰임새 많은 인재로 활약할 수 있다.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그런 차원에서 화정영어마을의 협약체결을 응원하며 우리 청소년들의 프로그램 성장과 영어능력 향상 등 다양한 발전이 있기를 기대한다.

내가 말레이시아 랑카위라는 휴양지에 갔다가 '입시용'으로만 공부했던 영어 실력이 들통났던 사건을 소개한다. 현지 바다에서 스낵스쿠버를 하던 날, 열대 바닷속 산호초와 무리지어 다니는 물고기 떼를 감상했다. 30분 정도 바다에 있다가 나왔는데 갑자기 옆에서 친구가 해파리에게 쏘였으며 비명을 질렀다. 그 즉시 현지인 선장은 쏘인 부위를 마사지하고 레몬즙을 발라주었다. 이때 안심이 된 친구가 선장에게 영어로 물었다. "원 데이, 투 데이 오케이?(one day, tow day OK?)"

나는 '뭔 소리야'하는 표정이었고, 이해하려 노력해보니 "하루나 이틀쯤 지나면 괜찮냐?"라는 뜻으로 알아들었다. '영어가 내 친구를 잘못 만나 고생이 크구나. ㅋㅋ'라는 생각도 함께.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다음이었다. 말레이시아 선장이 이 말을 알아듣고 곧바로 외쳤다. "노 프로블럼(No problem!!)" 허걱이다.

다음날, 리조트 내 헬스 시설에서 역기를 들고 씨름하던 친구가 손바닥에 물집이 생겼는지 프런트로 가더니 자랑스럽게 "헤이, 마이 핸드 워터 하우스(Hey, my hand water house)"라고 말하는 게 아닌가. 손등에 잡힌 물집을 워터 하우스(water house)라니!!

그런데 이번에도 정말 신기하게 프런트에서 금방 알아듣고 "저스트 어 세컨드, 플리스(Just a second, please)"라며 약을 가져와 발라주는 게 아닌가. 친구는 "봐, 알아듣잖아. 킁킁킁..." 이 기발한 콩글리쉬가 우리 사이에선 전설처럼 남아있지만 역시 그래도 '제대로 된 영어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화정영어마을이 말레이시아 페낭의 국립고와 제휴 협력을 맺은 것이 우리 안산시 청소년들의 좋은 영어실력 갖추기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김세준(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안산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추천하는

### 건강 먹거리



#### 대구의 효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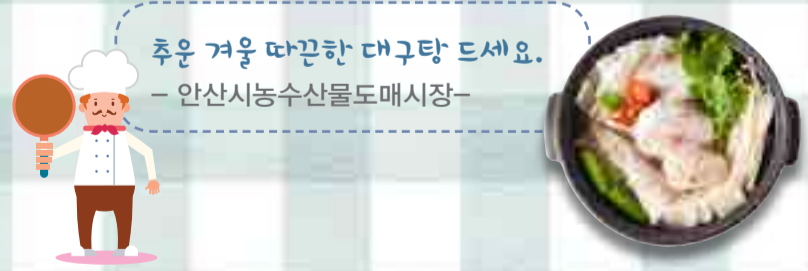
- **다이어트 효과 최고** : 단백질이 풍부하고 지방이 적어 저열량 고단백 식품으로 비타민 B2가 풍부해 지방을 분해하고 피부 미용에 효과적이다.
- **눈 건강 및 감기 예방 효과** : 비타민 A, B1이 풍부해 눈 건강과 감기예방에 좋고, 칼륨이 많아 고혈압을 걱정하는 분들에게도 좋습니다.

#### 맛있는 대구를 고르는 방법

- 몸 전체가 통통하고 단단하며 빛깔이 푸르스름하고, 토막 내었을 때 살이 투명하며 연분홍빛인 것이 신선합니다.
  - 아가미를 들춰보았을 때 싱싱한 선홍색을 띤 것일수록 좋습니다.
- ※ 도매시장의 대구 가격(2017.12.15.(금)기준) : 국내산 1마리(2kg) 15,000원(매일 거래 가격 변동됨)

#### 대구 요리 종류

- 대구탕, 대구찜, 대구조림, 대구구이, 대구포, 대구전 등.



**장하다.당신! 보호해요.오천만원!**

소중한 가족을 위해, 힘찬 미래를 위해, 아끼고 아껴 예금하는 당신! 이렇게 장한 당신을 위해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예금보험공사가 지켜드립니다

KORC 예금보험공사  
KORC 보육예금상품



적십자회비 모금 안내

2018 적십자회비로 나눔을 실천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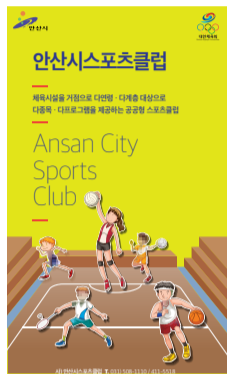


- ◇ 모금기간
  - 집중모금 2017. 12. 1. ~ 2018. 3. 31.
  - 연중모금 2017. 12. 1. ~ 2018. 11. 30.
- ◇ 납부방법 : 가상계좌, 금융기관 창구, CD/ATM, 공과금 수납기, 인터넷

◇ 후원문의 : 대한적십자 경기도지사 (1577-8179)

- ◇ 원서 접수 시간 : 10:00 ~ 17:00 (12:00~13:00 점심시간)
- ※ 주의사항: 우편접수 불가 / 응시원서는 합창단 사무실 비치
- ◇ 원서 접수장소 : 안산시립합창단 사무실(안산문화예술의전당 내 위치)
- ◇ 문의 : 안산시립합창단 사무실(031-481-4098)  
안산시 문화예술과(031-481-2064)

안산시스포츠클럽 안내



- ◇ 장소 : 호수체육관 및 부속운동장, 원곡체육관 및 부속운동장
- ◇ 운영종목 : 배드민턴, 탁구, 펜싱, 농구, 유아체육
- ◇ 모집기간 : 2017. 12. 8부터 수시모집
- ◇ 연 회 비 : 개인 20,000원, 단체 100,000원(유·청소년에 한함)

- ◇ 가입혜택 : 프로그램 수강료 10% 감면, 대회 출전, 주말리그 참가
- ◇ 문 의 : 안산시스포츠클럽 사무국(☎031-508-1110)

채용박람회

목요일에 희망잡(job) 고(go)



- ◇ 개최일시 2018. 1. 4. (목) 14:00 ~ 16:00
- ◇ 장소 : 안산시청 대회의실
- ◇ 참여대상 :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 / 구인을 원하는 기업체
- ◇ 주최/주관 : 안산시/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
- ※ 구직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 문의 : 안산시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센터 (031-481-2931, 2882)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 영재아카데미 모집

한양대학교 ERICA 전공기반 과목(창의로봇, 실용음악, 실용무용, 미술, 골프)영재를 모집합니다.

- ◇ 모집대상 : 초등부(초등 3~6학년) / 중등부(중등 1~3학년)
- ◇ 교육기간 : 1년 (주 1회, 초등:120분/중등:180분)
- ◇ 일정 : • 학부모 설명회 : 2017. 12. 26.(화) 13:00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 소극장
- 온라인 접수 기간 : 2017. 12. 26.(화) ~ 2018. 1. 5.(금)
- 추가 서류 제출 : 2017. 12. 26.(화) ~ 2018. 1. 10.(수)



- ◇ 문의 : 한양대학교 ERICA사회교육원(031-400-5843~6, 5850), 홈페이지(http://cec.hanyang.ac.kr/)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또는 한양대 ERICA사회교육원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2018년 안산시립합창단

신규단원 모집안내

- ◇ 모집부분 및 인원 : 각 10명(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 ◇ 응시원서 기간 : 2018. 1. 2.(화) ~ 2018. 1. 5.(금)



책 읽는 안산 / 12월 추천도서

이달의 주제 『마음 속 여유 한 칸』



아홉살 마음사전

저자 박성우 / 출판사 창비

『아홉 살 마음 사전』은 따뜻하고 유머러스한 동시에 어린 독자들에게 '감정'을 알려줍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들이 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감정 표현을 그림과 함께 사전 형태로 소개합니다. 마음을 표현하는 단어 80개를 구체적이고 실감 나는 글과 그림으로 만나보세요.



나는 왜 내 마음을 모를까?

저자 조미혜 / 출판사 자음과 모음

자기 안의 감정 때문에 당황하고, 아프고, 힘든 시대. 이런 자신들을 '중2병'에 걸린 '중2'로 치부하는 어른들을 향해 멋지게 한방을 날려주고 싶은데, 도대체 자신의 감정을 설명할 길이 없으니 억울할 따름이다. 감정을 공부하면 과연 진짜 '나'를 만날 수 있을까? 이 책은 특히 불편한 감정으로 분류되는 《불안》, 《시기심》, 《분노》, 《슬픔》 네 가지 감정에 주목했다. 십대들이 겪는 상황에 대한 반응과 행동을 살펴 자기 안의 진짜 감정을 발견하는 방법을 이야기한다.



사라지고 싶은 날

저자 니나킴 / 출판사 콜라보

외롭고 힘든 감정을 자신만의 독특한 시각으로 풀어내는 니나킴 작가의 그림 에세이. 걱정 많고 상처투성이인 주인공 '워리'(Worry)가 쓰레기통 속으로 빠진 다음, 떠나게 되는 여정이 담겼다. 그곳에선 선풍기 바람을 타고 송~ 날아가 보기도 하고, 비밀의 벽에 "열려라 통닭"하고 외치면 다른 세계로 연결된 통로가 열리기도 하고, 마음속에 환풍기를 설치해 나쁜 감정들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딸깍 딸깍 빼버릴 수도 있다.